

월간 증 현



'79 4월호

= 부활절을 맞으며 =

내 양을 먹이라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다.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아무런 존재가치가 없는 것이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된 것이라고 사도바울은 그의 고린도교회에 보낸 첫번째 편지에서 말씀하고 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요11:25 이하에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시면서 이것을 네가 믿느냐고 물어보신 적이 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때 이것을 네가 아느냐 라고 물어보신 것이 아니고 이것을 네가 믿느냐 (Do you believe this?) 라고 물으셨다. 신앙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이다. 그것은 사실이요 감격이요 그리고 믿음의 문제인 것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이것은 비단 시몬 베드로나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만의 신앙고백이 아니다. 이는 오늘 우리의 공통된 신앙이요 또한 고백이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인 것이다.

4월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이 있는 달이다. 부활절은 기독교회의 최대의 명절이요 축제의 날이다. 그러나 부활절은 꼭 4월에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어느 해는 3월에 부활절이 있기도 한다. 그것은 부활절을 설정하는 방법이 성탄절이나 추수감사절과는 다소 다르기 때문이다. 부활절은 춘분 후 첫 만월 (음력 보름)이 지난 첫주 일로 결정하기 때문에 금년은 4월 15일 주일이 부활절이 되는 것이다. 작년에는 3월 26일이었다. 내년에는 또 다른 날이 될 것이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부활절을 맞이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는 부활절 축하행사를 하며 부활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겨 보기도 하는 것이다.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그리고 사랑하는 주의 제자 120명은 가까운 사람들이 마가요한의 다락에 모여 열흘 동안 합심기도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이 사실은 교회 역사상 너무도 중대한 사건이요 길이 길이 빛나는 역사이다. 그때 거기 모였던 사람들은 오순이 되기까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합심하여 기도하였다. 오순절 (Pentecost)이 이르매 그들은 한결같이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했다. 저희가 다 성령으로 충만하였다(행 2:4)고 했다.

그리고 난 후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유다와 사마리아로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던 것을 보게된다. 그런데 그들이 나아가서 증거한 증거의 내용이 무엇이었던가? 행2장을 자세히 읽어 보면 그들이 증거한 메시지의 중심을 찾아 볼 수가 있는 것이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나셨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그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부활절을 맞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중의 하나인 것이다.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면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부드러운 음성으로 축복하신 말씀과 아울러 부탁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첫번째의 말씀은 요20:21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으로써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찌어다. (Peace be with you.) 라고 하신 말씀이었다. 그리고 두번째의 말씀은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Receive the Holy Spirit) 고 하신 말씀이다. 그리고 세번째의 말씀은 21장에서 세번이나 찾아 볼 수 있는 말씀으로서 이는 티베랴 바닷가에서 있었던 사실이다. 옛날의 직업이었던 고기잡이 하던 일로 되돌아가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한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고 헛수고만 하고 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여 그러하되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라는 말씀이다. 내 양을 먹이라 (Feed my sheep) 는 말씀이 세번씩이나 있음을 보는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겠는가?

그리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심중의 깊은 뜻이 무엇이겠는가. 이것을 바로 아는 것이 부활절을 맞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져야 할 또 하나의 크나큰 의의가 아닌가 싶은 것이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되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양을 먹이라. (요 21:15)

월간충현의 목적

1. 개혁신앙의 전파
2. 말씀의 생활화
3. 성도의 교제

충현교회 3대 목표

우리는 전통적 개혁주의에 입각하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대소요리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하여 신앙생활을 확립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표를 둔다.

1. 말씀을 파수하는 교회가 된다.
2. 천국 일꾼을 키우는 교회가 된다.
3. 민족과 세계 복음화를 위한 교회가 된다.

제 7 권 제 64 호

월간 충현

* 차 례 *

권 두 언 내 양을 먹이라	주 간 · 2
이달의말씀 십자가의 도	김창인 · 4
부활절 아침에 부활의 능력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김창인 · 6

특 집 /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며

백성룡 · 9

성주진 · 김용선 · 김석원 · 남성호 · 이성봉 · 김재창
김하진 · 김경성 · 안석렬 · 김경신 · 김연이 · 김은숙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특별기고	소련에서 온 편지	김영국 · 14
한알의밀알	신앙은 삶의 터전 마련	김석원 · 17
편집실칼럼	우리들의 영역	고제원 · 18
찬송가감상	예수 나를 위하여	김중석 · 18
도서 정보	3월중 구입한 도서	도서실 · 19
책 소개	교회의 교육적 사명	이준교 · 19
주간예배	시편 58 · 59편	김창인 · 20
이달에만난사람	김수성목사	편집실 · 21
신앙간증	자아가 깨어지면서	신표근 · 22
성경통신	3월 성경통신 해답	성경학원 · 23
기독교윤리	신약의 윤리관(1)	김하진 · 24
선교월보		해외복음선교회 · 26
구역공과	제19 · 20과	이성봉 · 28
구역소식	오늘의 우리기도 · 3월중 새교우명단 결혼명단	편집실 · 30
교회소식		· 32
편집후기		· 34
부활절시	부활의 새아침에 붙여	이양우 · 35
실로암	못가에서 병아리와 할머니와 부활과 ...	이승근 · 36

표지 설명: 춘기성례식중 성찬식, 우리는 이 성찬식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남을 확인한다.

이것은 성도들의 헌금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

성경 / 고전 1 : 8 ~ 25

김 창 인 목사

(본 교회 당회장)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받기 원하는 말씀의 내용은 땅위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길을 가고 있는 나그네들인데, 우리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를 걸머지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는 나그네들이 됩시다 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 성공하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땅위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모르는 사이에 계속해서 길을 가고 있는데 성공하는 길을 가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느 길로 가야 성공이며 성공은 무엇이나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은 돈 많고 박사학위 받고 권세를 얻는 것이 성공이라고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공은 열매를 보고야 성공이라고 합니다. 돈을 가지고 선한 일을 못하고 나쁜 일에 쓰면 돈 때문에 실패한 사람이고 지식으로 하나님 높이고 나라를 번영하게 하지 못하면 성공이 아닙니다. 성공은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자의 성공은 하나님께 영광, 믿는 사람에게 덕, 아니 믿는 사람에게 빛, 후세에 오는 사람에게 길을 열어 주는 혜택,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면류관 받을 수 있는 보고서 준비, 이것이 성도들의 성공이며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성공입니다.

그러면 성공자가 되려면 어느 길을 가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성공자가 되기 위해 욕심을 품고 인생 일생의 세월을 보내는 즉 욕심에 끌려 인생길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에 욕심, 권세에 대한 욕심 때문에 남을 죽이고 나보다 나은 사람을 증상 모략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향락을 구해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기나긴 겨울밤을 넘겨가 죄악의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며 향락에 취한 사람들. 자기의 인격, 가정, 나라를 망치는 불쌍하고 안타까운 인생들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정에 끌려서 선한 일할 생각 못하고 싸움하는데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미련에 끌려 인생 일생의 세월을 보내는 시간도 많습니다.

이러한 길을 걷는 사람은 하나님께 욕이 되고 저주가 되며 후손에게 멸망의 합정이 됩니다. 욕심을 따라간 걸음이, 향락에 끌려간 걸음이, 인정에 끌려간 걸음이, 미신을 따라간 걸음이 필경 자기 자신을 죽이고, 지옥으로 이끄는 길을 걷는 법이니 여러분들은 꿈에라도 그런 걸을 걸지 마시고 그런 걸음이 흑이라도 있으면 눈물로 회개하여 끊고 오늘부터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의 천국을 향해서 올라갑시다.

2. 십자가의 길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올라갈 것입니까? 자기 자기 몫의 개인 십자가를 지고서 갯세마네 동산 언덕까지 올라 갑시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지시고 가신 십자가를 생각하며 내 몫의 십자가 지고서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만 가야 성공자가 됩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 십자가의 길이라는 말은 첫째, 아름다운 목적을 정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지옥 갈 생명들을 구원하는 것이며 둘째, 자기 욕심, 교만을 버리고 아름다운 목적을 이루기 위해 땀과 눈물을 쏟아 희생의 기쁨을 짜면서 뒷사람을 대접하고 아랫사람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길은 괴롭고 손해만 나는 길이며 참기 힘든 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께 영광만 되면 나는 죽어도 좋아.”하는 사람만이 가는 길입니다. 이 길을 이해하는 사람은 그 길을 정찬하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조롱하고 퍽박하고 미워하고 고생을 시키니 너무나 가시밭길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이 길만 가야 됩니다. 재미도 없고 돈을 많이 바치고 고생을 칠것하고 욕을 얻어 먹고 마지막에는 삽화여 죽는 길일제라도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합니다. 한걸음 더 나아가 나는 세상에 나그네로 사는 동안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천국 가리라는 결심과 각오를 해야 합니다.

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시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할소서.

3.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십자가의 길을 걷기 시작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과 정상적인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정상적인 교제는 나무가지가 나무뿌리와 정상적인 교제를 나누어 자라듯이 행복이요 성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정상적인 교제를 나누면

첫째, 보호를 해 주십니다.

위태로운 길을 가는 것 같은데도 손해를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계획이 없이 가는 길일찌라도 성공의 길이 되어 버립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던 길 그 길이 성공의 길일 줄이야 누가 알았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교제가 이루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그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둘째, 새 사람이 됩니다.

어떻게 새 사람이 되는가 하면 지혜로운 새 사람이 됩니다. 인간적 지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만사를 깊이 보고 똑똑히 보는 지혜가 열린 새 사람이 됩니다. 지혜의 눈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인생을 알고 세상을 알고 자기의 책임을 알고, 악마를 압니다. 이러한 것들을 알면 신자의 땅 위에서의 전쟁 생활에서 승리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변하여 새 사람 되어 먼저 지혜를 얻고 다음에는 승리자가 됩니다. 바로 자기 자신부터 이기고 더 나아가 환경을 이깁니다.

자기 자신을 이긴 사람은 환경을 이기고 그 다음에는 악마를 이깁니다. 바로 이긴 사람은 성공합니다. 자신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악마를 이기고 지옥 권세를 이겼으니 맺는 것은 성령님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로 창고마다 채워집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어려운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피로운 길입니다. 손해만 나는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상적으로 교제를 해주실 때에는 손해가 아니고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승리자, 성공자가 되는 밑거름이 되어 거기에서부터 뿌리가 들고 가지가 크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충현의 성도들이여! 세상을 따라 자옥으로 내려가는 삶을 살지 마세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지러운 세상 즉 순서가 바뀐 세상입니다. 순서가 바뀌어 질 찾기 어려운 세상이며 성공의 길을 걷는다고 하지만 실패의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쉬운 세상입니다.

이러한 험한 세상에서 우리들은 삽니다. 사람이 사

람을 믿을 수 없고 어느 시간에 지진이, 전쟁이 일어 날는지 모르는 시간에 삽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욕심따라 인정에 끌려 지옥의 유혹에 빠져들지 말고 남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탐과 눈물을 흘리면서 십자가의 길을 갑시다.

우리 교회 이름이 충현교회인데 충현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지을 때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는 길은 세상을 따라 내려가는 길이 아니고 내 주를 따라 올라 가는 길이다. 갓세마네동산까지 갈보리 언덕까지 천국까지 올라가는 것이 예수 믿는 길이다. 그 길은 쉬운 길이 아니니까 충성심을 가지고만 끝까지 올라갈 수 있다. 충성심 없으면 못 올라가기 때문에 충현에서 충성 충(忠)자 밑에 고개 현(峴)자를 붙여 충현교회라 하였으니 충성심을 가지고 고개로 올라가는 신자가 되자는데 근본적인 뜻이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수난전을 앞에 놓고 욕심따라 향락따라 가지 말고 내 몸의 십자가 내가 지고 가면서 수고의 담을 흘리고 정성의 눈물을 흘리고 희생하면서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순교할 것을 각오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산 말입니다.

순교의 각오를 가지지 않고는 예배당을 못 짓고, 천국 일꾼을 바로 못 키웁니다. 우리는 새 성전 건축과 천국 일꾼과 평양 가서 부흥회 할 것을 앞에 놓고 나무를 심읍시다.

나는 그동안 고생했으니 조금 더 고생해서 내 후손들에게는 꽃구경 시켜주고 굶은 나무 찍어 집 짓게 하여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짊어집니다.

선한 목적을 정한 공부, 장사, 정치·십자가를 지는 공부, 장사, 정치를 하자는 말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면 나는 부활의 영광을 땅에서 못 누리고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서 누릴찌라도 내 후손에게는 땅에서부터 부활의 영광을 맛 볼 것이니 선한 목적을 정하고 십자가를 지는 생활을 하며 맡겨준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과 정상적인 교제를 나누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디오 방송설교 안내

＝매주일 3부 예배 실황＝

하세아 방송 (1566 KHz)

매주일 오후 7시 15분

부활의 권능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이 원고는 지난해 부활주일(1978. 3. 26) 아침 K.B.S. -T.V.의 일요
응접실에 방영됐던 우리 교회 당회장 김창인목사와 윤재천 교수와의 대
담실황을 옮긴 것이다. 편집자

윤교수: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오늘 새벽 여의도 5.16광장에서는 기독교 연합예배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충현교회 당회장님이시고, 북한선교회 이사장님이신 김창인 목사님을 찾아 뵙고 부활절에 얽힌 여러가지 말씀을 나눠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목사: 네, 안녕하십니까?

윤교수: 오늘 아침부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새벽연합기도회가 있었다고요?

김목사: 네

윤교수: 그런데, 기독교의 부활절이라는 것은 명절 가운데도 가장 큰 명절로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에는 여러가지 명절이 있는데, 이번 부활절은 어떤 명절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김목사: 우리 기독교에는 큰 명절이 넷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아드님 예수님이 탄생하신 구주 성

탄일이요, 둘째로는 밀, 보리를 거둬 들이고 하나님 앞에 여름 곡식을 거둬 들인 감사를 드리는 맥추절, 그 다음에는 가을 곡식을 다 거둬 들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절, 그리고 오늘 아침 지킨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사흘만에 부활하신 부활절, 이 사대절기를 기독교의 큰 명절로 생각합니다.

윤교수: 그러면 이 부활절은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어떠한 중요성을 갖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지요.

김목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드님으로서 천하 만민을 구원해 주시려고 먼저 천국의 영광을 떠나셔서 세상에 오신 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버리시고 세상에 우리들 건지려 오신 일이 출발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역조창생을 지옥과 악마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인간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어 주신 대속. 이 두가지 일이 한없이 크지마는, 예수님께서 사흘만에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드님으로 세상에 오셨다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완전한 믿음의 초석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드님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것, 예수님이 만민을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로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은 기독교의 기초이며 전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활의 귀하고 거룩한 일을 온 성도들이 무엇보다도 가장 기뻐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영광으로 알고 무엇보다도 세상 악마를 이기는 힘을 얻는 소



윤재천교수와 대답하는 김창인목사(좌)

지난해 부활주일 아침에
KBS-TV의 방영 모습



망의 가장 기초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활절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윤교수: 네 그렇다면은 한국교회와 이 부활절과의 특수한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김목사: 1885년 4월 5일에 언더우드 박사님과 아펜셀라 박사님 두 분이 인천에 생명의 복음, 기독교 복음을 들고 상륙하셨습니다. 그 날이 곧 부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의 선교는 부활절에 전도를 받아서 출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교회는 세계 기독교역사 가운데 가장 크게 부흥한 교회인데, 이것도 역시 부활절에 전도를 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인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윤교수: 부활절은 기독교 사대 명절 가운데서 큰 명절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활절의 의의, 보통 일반인들은 그 부활절이라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그 말만 알고 있지 그것이 어떻게 되어서 어떠한 과정에 의해서 부활했다는 것은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 의의를 좀 자세하게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지요.

김목사: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 지구 덩어리가 매우 넓기는 넓다마는 사람들이 어느 구역을 막론하고 다 가 볼 수가 있는 줄 압니다. 탐험가들이 가 보지요, 가 보고 와서는 어디는 무엇이 있고, 어디는 무엇이 있더라고 다 말씀들을 해 주지요. 그러나,

다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호랑이 굴에 사람이 들어 갔는데 나오지 못했다는 말은, 호랑이한테 죽임을 당했다는 말이겠지요. 그러나 한사람은 호랑이 굴에 갔다가 살아 나왔습니다. 나왔다는 말은 호랑이를 죽이고 승리하고 나왔다는 말이겠지요. 그것처럼 땅 위에 억만 사람들이 이 세상의 일은 다 압니다. 지구덩어리 구석구석을 다 아는 것처럼, 다 알지마는 죽음 저편의 일은 누구도 모릅니다. 또 확실히 말씀해 줄 분도 없습니다. 그 일은 죽음이라고하는 그 무덤이라고 하는 데에 들어 갔다가 다시 살아나오신 분이 없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무덤에 들어 가셨다가 죽으신 지 사흘만에 영광스럽게 다시 살아 나오셔서 죽음이 무엇인가, 내세가 무엇인가, 내세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해 주신 분이니까, 이 부활이 주는 가장 큰 의의는,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드님이라는 것을 확실히 증명하신 것,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이 올바르게 믿음으로 살면은 죽어도 영원히 사는 천국의 부활이 있다는 것, 한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시련에도 번창하고 부흥할 수 있다는 것. 예를 들어 말하면, 1917년에 소련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한없이 많이 죽이기 시작했는데, 그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이 소련에 일천 이백만 정도였읍니다. 그랬는데 1917년부터 지금까지 한없이 많이 죽었는데, 지금 소련에 예수 믿는 사람은 칠천 팔백만이 됐음



니다. 이것은 어떠한 핍박이라도 부활의 종교인 예수교를 말할 수 없다는 생명력이 있는 종교라는 것을 부활절이 특별히 우리에게 소망을 안기워 주시는 선물입니다.

윤교수: 네, 만일 부활절이 없다고 한다면 이 기독교라는 자체도 존재가 안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김목사: 그렇지요.

윤교수: 그렇다면 이 부활절을 맞으면서 우리들의 자세는 어떻게 갖는 것이 가장 올바른 자세가 될 수 있는지요?

김목사: 우리 한국 사람들은 조금 미안한 말로 적극적인 면에서 좀 약하다 할 수 있지요. 강한 나라들한테 눌리어 살아서 그런지 또 예의지국이라서 예의를 지킨다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좋은 의미에서는 그런지도 모르지마는 할 수 있다고 하는 적극적인 면에서 좀 약한 것 같아요. 우리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모시면 못할 것이 없다." 하는 그 확실한, 강한 담력을 얻읍니다. 만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는 것이 무서워서 최악의 종이 된다든지, 악한 자의 앞잡이가 된다면 그건 진짜 신자는 아니지요. 참 신자는 죽을 저편의 부활, 천국을 믿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구애가 없이, "선한일이라면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죽자." 죽으면 영원한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것이 기다리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들은, 진짜 신자들은 소극적인 자세에서 탈피해서 적극적인 면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지요. 그러니까 이 부활절이야말로 누구를 막론해 놓고 소망을

주는 가장 귀한 절기인 줄 압니다.

윤교수: 그러면 끝으로 목사님께서 전체 기독교인들에게 특히 부활절을 맞으시면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면 이 기회에 좀 해 주시지요.

김목사: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휴전선이 가로막혀 있는 데, 이것을 깨뜨리고 이북으로 돌아가서 백두산 소나무를 찍어서 방방곡곡에 예배당을 지을 마음은 있지만 이것은 죽은 사람을 무덤에 넣어 놓은 것처럼 희망이 없는 일 아닌가? 이렇게들 낙심하는 신자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펍 불안합니다. 우리가 8.15 해방을 생각해 봐도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는 상상도 못했던 선물을 주셨습니다. 죽은 지 사흘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한국 교인은 인간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백두산 소나무를 찍어서 잃어버렸던 땅, 신의주, 원산, 함흥, 회령, 혜산진까지 가서 예배당 지을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천번, 만번될 수 있다는 걸 믿고, 우리 오백만 신도가 하루 두번 이상 기도하면서 그 날을 위해서 준비하면 꼭 그 날이 올 줄 저는 확실히 믿고서, 이 부활절을 지키는 한국 교회 오백만 성도들이 휴전선 이북에 가서 예배당 짓는 날을 달라고 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용기를 얻는 기회가 되기를 꼭 원합니다.

윤교수: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원을 이룰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는 부활절입니다. 내년에는 이북 동포들도 다 함께 이 부활절을 맞으면서 우리들의 소원이 이루어지게끔 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목사: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며

죽음을 무서워 않은 사람들

백 성 룡목사
(부목사)



들이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소위 대동아전쟁) “가미가제”라는 전투기에 몸을 싣고 미국 함공모함에 “다이하다리”(육탄으로 기체에 부딪혀 자폭하는 것) 해서 산화해 가던 일본의 젊은이들은 정말 죽음을 무서워할 줄 몰랐다.

그 철저한 정신교육이 그렇게 엄청난 일들을 저지르게 했던 것이다. 그리고 국민학교 어린이들에게 그들을 “군신”(軍神)이라고 추앙할 수 있도록 했고 너도나도 천황제에게 충성하는 본보기처럼 예찬을 했던 것이다.

어느날 아침 라디오에서 부부가 싸움 끝에 방안에 석유를 쏟아 뿌리고 분신 자살을 기도했다는

보도를 들었다. 이들도 죽음을 무서워할 줄 모르는 미련한 사람들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두번째로 죽음을 무서워 않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다.

이들의 죽음은 죽은 후에 생명의 부활을 보장받은 죽음이다. 이에 부활의 보장을 받고 죽는다는 믿을 수 없다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는 사흘만에 친히 다시 살아나시어 첫 열매가 되어 주셨다. 생명의 부활의 보장은 이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신앙) 죽는 죽

음에서만 받는 보장이다.

생명을 귀한 줄 모르고 전쟁이라는 도발에 젊은이들의 생명을 걸었던 권세자들이나 현실을 극복하기 어렵다고 자살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은 다음에 오는 지옥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우리는 생명을 귀한 줄 알기에 생명의 부활의 보장을 받고서만 죽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부활의 신앙이며 지혜로운 삶의 정신적 터전이 되는 것이다.

삶 가운데의 부활신앙

성 주 진전도사
(고등부 부지도)



하나, 십자가 앞에와 무덤에서만 너무 오래 머무르지 있지 않나 생각하게 된다. 죽으시고 장사지낸 바 되셨던 그 동일한 예수님께서 사흘만에 부활하신 능력과 의미를 나의 삶 가운데에 더욱 힘있게 적용시킬 수 있기를 기도한다.

하나, 십자가 앞에와 무덤에서만 너무 오래 머무르지 있지 않나 생각하게 된다. 죽으시고

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그토록 알려하여 그리스도 에 수계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좇아 간 것을 생각한다. 그리스도의 다시 사실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어야겠다. 그의 부활이 없으면 내가 아무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부활신앙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을 확인한다. 셋, 삶 가운데서는 말기유까지만 갈릴리와 무덤까지만 갔던 신앙의 자리에서 일어나, 기쁨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확인하고 체험하며 증거하는 삶의 현장으로 이끄시는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린다.

부활(復活)의 노래



김 용 선전도사
(실방담당)

다시 사신 주님
나 항상 따르리
승리의 주님
나 항상 노래하리
영광의 주님
나 항상 바라리
그 사랑 그 은혜
잊을길 없으라

다시 사신 주님
나 길이 모시리
승리의 주님
나 길이 찬양하리
영광의 주님
나 길이 뵈오리
그 사랑 그 은혜
잊을길 없으라

다시 사신 주님
나 영원히 불들리
승리의 주님
나 영원히 높이리
영광의 주님
나 영원히 같이하리
그 사랑 그 은혜
끝이 없으라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부활과 여자들

김 재 창 목사
(부목사)



기독교는 무덤이 없는 부활의 종교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므로 확증된 것이다. 여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처음 만난 여자들이 있다.

그들의 믿음을 본받자.

첫째는 열심과 정성이 넘치는 불변의 신앙의 사람들이다. 새벽 어둠을 뚫고 예수님의 무덤의 동산을 찾은 그들의 믿음은 예수님의 시체처럼 식지도 않고 죽음처럼 중단되지도 않는 신앙이다.

우리도 시대와 환경을 초월하는 불변의 신앙으로 열심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믿고 따르며 섬기자.

둘째는 무서움과 큰 거름의 신앙이다.

무서움은 자연인의 상태요 큰 거름은 영적 심령의 상태다. 외적인 무서움의 소용돌이 치는 세상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부활의 확신만 있다면 큰 거름의 승리의 생활은 곧 나의 것이 될 것이다.

세째는 무덤을 떠나 달음질치는 신앙이니 무덤은 슬프고 죄악의 냄새나는 옛 생활을 의미한다. 우리도 갖가지의 슬픔과 죄악은 과감히 떨쳐버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할 사명의 세상을 향하여 용기있게 달음질치는 충성된 일꾼이 되자. 이 발걸음이야말로 얼마나 복되고 영광된 것인가?

부활 후의 예수님

김 하 진 목사
(부목사)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여러번 나타나신 것을 볼 수 있다. 그

가운데 세번은 사복음서 외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것은 ① 다메섹 도상에서의 바울(행9:4-5, 22:6-8)에게, ②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행7:54-60), ③ 사도 요한이 밧모섬에서 생활할 때 환상 가운데 나타나신 것이다. (계1:13)

그밖에 아홉번은 모두 사복음서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① 일

주의 첫날 예루살렘 무덤 앞에서 막달라 마리아등 여인들에게 (요 20:11-18, 막 16:1-11) 나타나시고, ② 시몬 베드로 (막 16:7, 눅 24:12, 요 20:1-10)와, ③ 엠마오로가는 두제자 (눅 24:13-35), 그리고 ④ 저녁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곳 (눅 24:39, 요 20:19-20) 에 나타나신 것이다.

그 후 일주일이 지나서 ⑤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도마에게 (요 20:26-27), ⑥ 갈릴리 (디베라바나)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요 21:1-7) 나타나서 어 이적을 베풀었고, ⑦ 또 갈릴리 산에서 11제자 (마 28:16-17) ⑧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고전 15:7), ⑨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베다니로 인도하여 손을 들어 축복하시고 그들을 떠나 하늘로 승천하신 것이다. (요 24:50-51, 행 1:9-11)

사월과 죽음

김 경 성 전도사
(대학부 부지도)



겨울의 황량함을 딛고 일어서는 목련의 우아함을 대할 때마다 사월의 단결과 소생의

두가지 의미를 느낀다.

자연인으로서 나는 흙냄새를 즐기며, 소담스럽게 물기가 오르는 잎을 보며 환호성을 친다.

그러나, 그보다 더 경이한 것은 나는 죽었다는 사실이 왜 이렇게 놀라운 일로 해마다 감사케 하는지…… 만약에 「나는 죽었다」

는 인격적인 체험이 없었고,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란 만남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결코 있을 수가 없다. 무엇보다도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요 3:3)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 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딤후 1:8)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할례당이라」(빌 3:3)

이와같은 귀한 말씀의 뜻을 어떻게 이 어리석은 사람이 알 수 있었을까? 살아갈수록 어리석고 철없음을 그리스도만이 아시고 불드심을 감사하면서 이 부활절을 맞이한다.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며

엠마오의 대화

김 석 원 전도사

(초동부 지도)



엠마오의 대화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절망과 공포에 젖은 슬픈 대화

였습니다. 엠마오의 대화는 20세기의 방향감각을 상실한 현대인들 속에 처절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죽은 예수」 걱정을 하고있고, 하루 24시간 입에서 나오는 수천마디의 말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소동고모라의 대화를 제외하고 나뉘는 것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엠마오의 대화! 그것은 성경을 기초로 하고 이루어진 가장 진실하고 가장 힘있는 대화였습니다. 엠마오의 대화! 그것은 식어진 제자들의 불안한 마음에 불을 붙였고, 그들의 눈을 열어 가리워진 사실을 보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렇게 눈이 밝아진 그들의 발걸음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분산된 그들의 힘을 재결합하여 세계 선교역사를 변화시키는 전환점을 형성하게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부활하신 주님과 엠마오의 대화가 있어야 하겠습니까. 마음이 뜨겁고, 눈이 밝아지고 개개의 힘이 함께 묶어지는 단결의 힘을 성경을 기초로 하고 이루어진 하나님과 인간의 대화에서 인간과 인간 사이의 구김없는 대화 속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부활의 메세지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엠마오의 대화에서 발견해 봅시다.

부활의 아침에

남 성 호 전도사

(중동부 지도)



파숫군의 새 아침은 어두운 밤이 지난 후에 오고
탐스런 열매는 씨앗이 썩어진 후에 맺히지며

부활의 영광은 십자가의 고난을 맛 본 후에 오고

생명의 면류관은 가시관을 쓴 후에 오는구나.

× × ×
보라! 저 부활의 영광을! / / /

영문밖 끝고다의 길에 밤! 눈물! 피! /

주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면
주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라네
죽음의 생활은 승리의 생활이요

죽음의 생활은 부활의 생활이라네

이제!

영광된 그 날이 찾아왔구나.

새 하늘과 새 땅의 빛을 마음껏 마셔라!

부활에 관련된 몇가지 사실

이 성 봉 목사

(청년부 지도)



①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경대로 되어진 것이다.

요나의 사건과 같은 모양으로 되어

졌다. (마 12:39~40). 예언자들의 예언대로 되어졌다. (사 26:19 단 12:2, 호 6:2, 요 2:10, 사 53:10). 그리스도의 육체로서의 성전을 3일만에 다시 세웠다는 그의 주장대로, 또한 죽음으로부터 3일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명확히 가르치신 대로 부활하셨다.

② 그리스도의 부활은 독특한 영광스런 사건들을 수반했다. 지진이 일어났고 바위가 굴러가 버렸고, 천사들이 파견되었고, 군

인들이 공포로 압도 당했다. (마 28:2~15)

③ 그리스도의 부활은 엄청난 능력의 행위였다. 그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가장 탁월한 기적이다. 그의 부활은 초자연적이고, 그가 하나님 되심을 입증하는 것이다.

④ 그리스도의 부활은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사건이었다. 그의 메시아적의 정당성으로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필요했다. 사망과 사탄(Satan)과 무덤을 정복하기 위해 필요했다.

⑤ 그리스도는 부활, 생명이 되시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는 죽음으로부터 첫번째로 태어나셨고, 그가 생명과 죽음의 열쇠를 갖고 계심을 증명하셨다. 그리스도는 사망을 괴롭히는 자가 되셨고 무덤을 파멸하는 자가 되셨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영광스런 육체처럼 자기 백성을 죽음에서 일으키시는데 그의 위대한 능력을 발휘하실 것이다.

아멘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며

도마가 쓴 편지

안 석 렬전도사
(어린이 세신자부 지도)



“제 이름은
도마입니다.
12 제자중 하나
이지만 부
끄럽습니다.
특히 부활절
만 되면 더욱

부끄럽습니다. 3년동안 주님을 따라 다니면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의 능력은 물론 많은 이적들을 이 두눈으로 직접 보았으면서도 주님께서 ‘사흘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했었습니다. 다. 주님께서 부활하시던 그날 무덤을 지키던 군병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돈을 받고 ‘에수의 제자들이 시체를 도적질 해갔다’는 소문으로 인해 우리는 문을 꼭 잠그고 숨어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다른 제자들이 내가 없을 때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직접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나는 믿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직접 내 손가락으로 그 손의 못자리에 넣어보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고 떠들어 댔었습니다. 얼마 후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나는 눈물을 흘리며 나의 주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습니다. 이 부활절 아침에 여러분께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와 같이 부활의 주님을 부인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는 이 부활의 아침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느 부활절

김 경 신전도사
(새가정부 부지도)



강원도의 4월은 새벽 서리를 미처 떨쳐 버리지 못한다. 아지랑이 뽕얇게 피어오르는 낮 한때는 등달미가 따끈따끈 익어 오지만 해 떨어지기가 무섭게 두터운 야전 잠바를 꺼입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미명(未明)의 고요 속에 새벽 보초를 서노라면 뱃속으로 스며드는 서릿발의 짜릿함을 가히 만끽할 수 있다.

유난히 늦게 강원도 신세를 진 나는 명색이 군종사병(軍宗士兵)이었기에 외부의 지원이 철벽처럼 막혀버린 상태에서 어떻게 부활절을 준비해야만 했다. 준비라고 해 보았자 고작 신우회(信友會)의 동료병사들의 알뜰한 호주머니를 털어 병사(일반동료)들을 위해 선물을 준비하는 것일 뿐이다. 부활절 새벽예배를 촛불에 배로 드리라고 의논이 됐다. 그러나 이 예배야말로 값비싼 회생을 치루지 않고서는 참석할 수 없다. 왜냐하면 모든 군인이면 누구나 져야하는 짐—야간 근무(보초)가 모두 똑같은 시간에 맡겨지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평소에 드리는 개울가의 주일예배—우리 부대는 창설된지 불과 2년 미만이었으므로, 총력을 진지공사에 집중하고 있었다.—예 모이는 20분 예배로 끝나는 게 한도였다. 성경 1장 읽고 찬송 부르고 기도 드린 후 주기도로 채회한다. 이 주일예배를 위해 간혹 식사를 희생하는 적도 있다. 그런데 야간 보초를 서고 나서 새벽 다섯시에 부활절 예배시간을 맞추어 나오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철야하는 각오로 잠을 희생해야 한다. 그러나 낮에 있을 작업이 병사들을 망설이게 한다.

어떻게 모였지만, 만가지 어려움을 이기고 새벽 5시에 촛불을 밝혀들고 모여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부활의 주님을 뜨겁게 찬양했다. 눈물겨운 찬송이었다. 모든 눈동자가 감격으로 충만하여 빛난다. 예배를 마치고 준비한 선물 봉투를 들고, 아직 근무 중인 다른 병사들을 찾아 나선다. 달걀 두개, 사과 한개, 빵 두개, 우유 한봉지... 수고하십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기쁨의 날입니다” 모든 초소를 다 돌고 나니 동녘이 완전히 밝았다. 붉게 물든 하늘과, 힘차게 소생하는 자연의 노래가 부활 찬양과 어우러져 하모니를 이룬다. 새벽을 일깨우는 새소리들도 명랑하기 그지없다. 골짜기에서 골짜기로 다시 사신 주님의 「생명의 노래」가 끝없이 여울져 간다. 벌써 2년 전의 일이다.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며

날마다 고난, 날마다 부활

김 연 이 전도사

(청년부 부지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자리에는 참여하기를 소망하면서도 고난의 산

에 동참하려는 자는 적은 것 같다.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을 받으라고 여러번 말씀하고 있다. 이는 고난으로 그치게 하려함이 아

니요 영광을 주시기 위한인 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고난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건이었다.

우리가 왜 부활의 감격이 없는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날마다 동참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리스도를 위한 희생이 바로 같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굶주린 형제에게 한끼밥을 희생하여 나누어 주며 병든 형제를 위해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는 희생, 불행한 이웃을 위해 밤잠을 자지 않고 기도하는 희생, 하고 싶은 것을 주를 위해 하지 않으며 하고 싶지 않은 것을 주를 위해 해 드리는 아픔을 통해...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생하기를 요구하시는 하룻



밤, 한끼밥, 몇분의 시간, 몇분의 돈 마저도 너무나 인식했던 때가 많았던 것 같다.

날마다 이런 희생의 생활을 통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므로 날마다 부활의 감격으로 사는 일생이라면 주님 뵈옵는 날 내가 결단코 너를 알지 못하노라시는 저주와 책망은 받지 않으리라. 날마다 고난, 날마다 부활.

* 어린이에게 들려 주는 부활절 이야기 *

처음 부활절

김 은 숙 전도사

(어린이 새신자부 부지도)



예수님은 훌륭한 하늘나라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어요. 그리고 소경, 절름발이, 문둥병이 든 불쌍한 사람들을 고쳐 주셨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 하셨어요. 더욱이 우리 어린이들을 무척 사랑해 주셨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좋은 말

씀을 듣기 위해 모였어요.

그런데 그 중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했답니다. 샘이 났던 모양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꾸 자꾸 따르니까 말이에요.

마침내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아 죽이기로 했답니다.

아! 얼마나 슬픈 이야기예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일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원하셨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말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던 아리마대 요셉 아저씨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 돌을 뚫어서 만든 무덤에 장사 지냈어요.

다음 다음 날인 주일 새벽에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던 몇몇 어머

니들이 예수님의 몸에 바를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무덤을 막았던 돌 문이 열려있지 않았어요? 조심스럽게 무덤 안으로 들어갔어요.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고 찬란한 흰옷 입은 천사가 있었어요. 어머니들이 너무 놀라서 떨고 있을 때 천사가 말했어요. "놀라지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는구나.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아!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놀라기도 하고 너무 기뻐서 이 기쁜 부활의 소식을 전하려고 어머니들은 막 달음질했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쁜 아침이었을까요? 이 날이 바로 오늘까지 우리가 지키는 부활의 첫번째 아침이었답니다.

* 어린이에게 들려주는 부활절 이야기 *

소련에서 온 편지

옮긴이: 김 영 국장로

(아시아발송국 노어 담당)

[역자 주] 이 편지의 발신 일자 1977년 9월 20일이지만 역자의 손에는 최근에야 비로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종류의 편지는 수없이 서방측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읽으면서 우리에게 보장된 신앙의 자유에 대해 하나님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국가에 대해서도 감사하며 동시에 이 편지의 주인공이 누리고 있는 신앙의 자유만큼이라도 북한 동포에게 있어지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보고서들은 소련의 젊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신앙의 불길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전하고 있는데 얼마나 고무적인 현상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소련에서 예수를 믿는 청소년 학생들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1. 학교에서 선생이나 학생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되어 따돌림을 받는다.
2. 교회적으로 나쁜 점수를 준다.
3. 뻘오레(적색소년단)나 콤포소(공산청년동맹)에 장제로 가입시킨다.
4. 경찰에서 심문을 받는다. (위협을 주어 기독교인 부모에게 불리한 증언을 얻어내기 위하여)
5. 성적표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명시한다. (이것 때문에 진학길이 막힌다.)
6. 부모에게 벌금을 물린다. (18세 미만은 교회 출입을 못한다.)
7. 부모로부터 격리되어 사회교육을 받는다.

많은 기도와 격려의 편지(노어·영어)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올해 25세의 청년입니다. 제가 소련의 북쪽 어느 마을의 크리스찬 가정에 태어났을 때 아버님 싸하로프는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10년형을 받고 복역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적부터 우리 가

족에게 갖가지 모양으로 박해가 가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부모를 떠나 이곳 저곳을 방황하는 생활을 강요당했습니다.

따라서 아버님과 같이 생활한 기간은 불과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가면서 몰래 만나곤 했지만 그 만남은 우리들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안겨 주었습니다. 재회의 기쁨, 그것은 정말 좋았으나 동시에 우리들의 마음 속에는 설렘도 있었습니다. 이번을 최후로 다시는 아버님을 못 뵈게 되거나 만나 하는 염려에서였습니다.

제 기억으로 가장 오래 아버님을 만난 것은 15일 내지 18일이 아닌가 합니다. 어린아이였던 저는 아버님과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충분히 하지 못한 것으로 기억됩니다. 낮에는 밖에 나가 놀 수 있었지만 밤에는 문을 걸어 잠그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아버님은 집에서 혼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야침 그날은 축제일이었으므로 대부분의 아이들은 밖에서 가족들과 같이 놀고 있었지만 우리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와같은 여러가지 곤란과 어려움을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극복하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어머님도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는지 모릅니다.

1969년, 우리 가정에 큰 시험이 떨어닥쳤습니다. 10월 13일, 일 갔다 돌아오신 어머님께서 이것 저것 집안 일을 마치고 잠자리에 드셨는데 이튿날 그 대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버님께서 병들어 입



예수 신앙 때문에 부모가
강제노동 수용소에 들어
갔기 때문에 고아 아인과
아들 둘이 천진난만한 열
곱들을 보라.



것은 가슴이 찢어지고 메어지는 것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저희들은 방랑생활을 강요 당하게 되었습니다. 막내동생을 빼앗겼다는 것, 또 그녀에게 당국의 사상이 강요되어 마침내는 세뇌되어 버린다는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쓰리고 아파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언젠가 렌헨이 학교에서 울면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틀림없이 슬프고 외로운 눈물이었겠지만 한편 기쁜 눈물이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학교에서 놀림과 빈정거림을 받았지만 집에 돌아올 수 있다는 기쁨도 그 눈물 속에 들어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불행하다고 하는 것은 렌헨을 우리들에게서 빼앗아 탁아소나 고아원에 보내기 때문이지요.

밤중에 렌헨은 몇번씩이나 지나가는 차소리에 삼이 깨어 벌떡 일어나 제게로 달려오곤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나나, 지금 지나가는 차는 날 삼아 다른 데로 보낼 차가 아닌지 몰라…」라고 하면서 몸을 떨곤 하였습니다. 저는 그녀를 위로하고 달래어 침대로 데려다 주었지만 그녀는 곧 깊은 잠을 들지 못하였습니다. 저에게는 커다란 인내가 필요하였습니다. 가족에게 쏟아지는 공갈이나 협박을 부모 대신에 받아야 했고 동생들을 위로해 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당국자들은 기어이 렌헨을 빼앗아다 고아원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저는 주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고 한 말씀을 생각하며 집을 떠나 이곳 저곳으로 방랑을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께서 남기고 가신 일들을 위하여 우리들은 이처럼 고생하고 피로워하고 또 꺾박을 받아야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번독이는 위협이나 협박, 끊임없는 방랑 생활 속에서 드디어 발작되어 사랑하는 렌헨과 이별하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그녀는 당시 「인민학교」 5학년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왜 이런 곤란을 겪지 않으면 안될까요? 또 렌헨과의 이별은 얼마나 오

래 계속될까요? 끌려간 동생은 무사히 지내고 있을까요? 가족으로부터 홀로 뜰 떨어져 있는 그녀의 마음은 얼마나 괴롭고 고독할까요? 또 교회로부터 친한 친구들로부터 빼앗아간 그녀는 어떤 생활을 하고 있을까?

이런 번민과 고통 속에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위로를 받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아 나를 꺾박하였은즉 너희도 꺾박할 터이요」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저희 부모께서 이 길을 택한데 대해서 말입니다. 부모님께서 저희들에게 남겨 주신 가장 큰 유산, 그것은 어떤 환경에 처할지라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오빠, 동생들이여! 누구든지 가족이 있는 여러분들에게 기도와 도고를 하실 때 저희 식구도 넣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언제 당국자들이 또 문을 두드릴런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는 강도와 도적이 있을 것입니다. 가장 큰 도적과 강도는 그 가족에게서 아이를 탈취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 밖에 것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가난한 생활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길러 온 혈육을 빼앗아 간 소행에 대해서는 전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제 남동생 미하일은 일자리를 빼앗겼습니다. 여동생 류바도 협박을 받고 일을 빼앗겼습니다. 공부하고 있던 단과대학에서 추방되어 자격을 얻은 기회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지금 그녀는 짐사나 당국에 호출되어 여러가지 심문을 받고 감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이지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싶은 것은 저희들을 기억해 주시고 도고해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아버님께서 저에게 남겨주신 성경말씀으로 끝을 맺으려 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수 24:15)

자하로와 나나 빠블로브나 올림

※이 자매를 위해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편지하여 격려해 주시면 더욱 감사할 것입니다.

신앙은 삶의 터전 마련

김 석 원 전도사
(초등부 지도)



「나는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 「나는 무종교다」 하는 것을 자랑삼아 말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본다. 그건 결국 「나는 어느 기성종교에도 가담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그렇다고 정말 아무것도 믿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된다. 가령 「나는 애인만 있으면 그만이야」 한다면 애인을 믿는 것이 된다. 「나는 돈이 제일이야!」 한다면 돈을 믿는 것이 되며 나는 「부모도 안 믿고 형제도 친구도 필요 없어!」 「나는 나 자신만을 믿어!」 한다면 그것은 자기를 신(神)의 위치에 놓는 것이어서 자기 신앙자가 되고마는 것이다. 그러므로 결코 무신앙자는 있을 수 없으며 따라서 진정한 의미에서 무종교자도 없는 것이다. 때문에 신앙은 창조주 신앙과 피조물 신앙을 구별해 볼때 이것은 창조주 신앙에서 피조물 신앙으로 이른 것으로 정의할 수 있겠다. 이와같이 인간 생활에서 신앙을 제외할 수 없다고 한다면 자연적으로 종교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왜 종교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 왜 종교가 필요할까?

종교란 이 세상에 삶의 어떤 운명적인 것을 위한 준비 과정이나 방편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아니더라도 지금의 삶 전체를 가장 진지하게 또는 항구적으로 건설하여 인간답게 삶을 바쳐야 할 전폭적인 삶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었다.

톨스토이는 50세 고비로 자살을 하려했다 한다. 이유는 삶이란 자체에서 아무 근본적인 의미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극도의 고민 끝에 그의 전폭적인 삶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여명이 밝았으니 그것은 그의 일기에서 「나의 삶은 마치 허공을 달리는 불안과 죽음에서의 공포」 였지만 절대자

신앙을 고백 후 자기는 마치 말이 대지를 밟고서 밝은 태양을 바라보며 밝은 공기를 호흡하는 것과 같다고 했다. 이같은 신앙은 삶의 터전을 마련하며 인간다운 전폭적인 삶의 코오스를 행진할 수 있다는 산교훈이 아니겠는가? 칸트는 “하늘에 반짝이는 별과 같이 자기 마음속에 양식을 가지고 인생관을 찾으며 젊은 날을 보냈다.”라고 했다. 학생들은 청소년 시기다.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참된 인생의 길이 필요하다. 참된 인생의 길을 걸기 위해서는 인생관이 있어야 하며 이것은 탈출구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잘 해야 하는 것 지금부터 일지도 모른다. 지금은 무엇이든지 제힘으로 나해낼 것 같이 생각되는 때이다. 그러나 인간다운 삶 되고 값있는 삶의 행진은 말랑말랑한 석고가 빚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닐 것이다.

방향을 어기지 않고 작전을 잘 세워야 한다. 그리고 내 안에서 힘이 되고 내 뒤에서 밀어주며 받혀 주는 무엇이 있어야겠다. 이것은 삶의 방향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삶의 방향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삶의 코오스가 진보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신앙을 가지고 전체로서의 인생관을 건설하는 삶의 전위부대가 있어야 한다. 예수님의 말씀에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라고 말씀한 귀결이 있다. 이 말은 삶이란 빵이 없어도 산다는 말이 아니다. 사람들은 빵만 있으면 산다는 실제 유물주의를 지적한 말씀이다. 나아가서, 그렇기 때문에 빵 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는 것이다. 물질이 삶의 부피를 만든다면 정신은 삶의 바탕을 만드는 것이 종교적 진수가 아니겠는가?

평심실 감람

우리들의 영역

고 제 원

현대는 자기 영역을 벗어나 남의 영역에 도전하려는 시대이다. 사회풍조 역시 작게는 젊은 층의 사고들이 기성세대층의 사고에 도전하려 하고 크게는 공산주의 세력이 민주주의 영역에 도전하고 있다.

갓난아이가 자기의 영역을 벗어나 국민학생의 영역에 들어가 활동을 할 수 없듯이, 또한 젊은 세대의 경험없는 이론의 영역이 경험이 풍부한 기성세대의 영역에 뛰어 들어가면 시행착오를 범했다고 깨닫고 물러서는 것처럼 오늘의 과학 문명이 과학으로서의 영역을 벗어나 자연을 향해 도전하고 있음으로 인해서는 무슨 현상들이 나타날 것인가?

현대의 학문의 추세도 통계적 수치에 의해 평가되어야 존재 가능하며 그 평가 기준은 자연이 되고 있다. 그래서 자연을 향한 새로운 도전의 장(場)이 펼쳐지게 되었다.

성경의 역사 속에서도 인간이 날뛰어 인간의 영역을 벗어나 하나님의 영역을 도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제재의 형벌을 주셨다. 과학도 학문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의 섭리를 향해 도전해 오고 있을 때 또 다른 하나의 형벌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겠는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요즘은 인간의 알뜰한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으며 특히 젊은 층에 많다. 말씀을 순종함으로 받지 못하고 세상의 책으로 생각하여 도전하는 자세로 받으니 그 개인에게는 역시 하나님의 형벌이 가해질 것이 틀림없다.

지식을 배세우기 전에 나 자신을 발견하여 겸손을 배워야 할 것이다. 어떤 것을 비판하기 이전에 먼저 학습에 임하라는 누군가가 한 말이 생각난다. 또 성경의 된 줄 알고 서 있는 자는 넘어 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이 생각난다. 비판을 하기 이전에 그 일에 대해 충실히 알고 연구하여, 비판하므로 빛어지는 문제점의 해결방안을 제시할 줄 알아야 할 것이다.

신자로서의 영역이 어디인가? 영역의 기준은 무엇인가?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신자의 영역이며 영역을 벗어나지 않을 수 있는 기준일 것이다.

찬송가 감상

예수 나를 위하여

(새 159, 합 191, 개 126)

김 중 석강도사

(성가부 지도)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 당하셨네

요즘엔 점점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든다. 하루의 생활을 끝내고 잠잘 때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나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나 자신을 보면서 서글퍼지기도 한다. 왜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 생활 속에 나타나지를 않는가! 몹시 고상한 가치를 논하면서도 가장 작은 행동을 해 보이지 못하는 나를 볼 때 그지없이 답답하고 안스러워진다. 남을 위하여 무엇을 한다는 것은 더 더구나 쉽지가 않다. 그런데 여기에 남을 위하여 최대의 것을 행한 분에 관하여 우리가 지금 찬송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 엄청난 의미를 너무 쉽게 입에 올리는 듯싶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고난 주간, 부활 주일이 닥아왔다. 제발 이번 고난절기에는 우리가 그 고난의 의미를 정말 깊이 깨달게 하소서. 교회에서 항상 입에 올리던 탕으로 해서 이제 별다른 의미도 못느끼고 무감동케 된 우리들이 이번에는 피부로 느껴듯 절실하게 고난의 의미를 알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실로 덩든지 차든지 하게 하소서!

작사자 크로스비 (Fanny Jane Crosby 1820~1915)는 맹인 여성으로 뉴욕 맹인학교에서 배우고 그 학교에서 가르쳤다. 맹아 음악가와 결혼한 그녀는 복음송가도 썼는데 8,000여편에 가까운 노래를 작사했다. 맹인이어서 그런지 이 노래는 조용하면서도 뼈저리게 파고드는 것이 있다.

작곡자 도언 (Doane William Homard, 1832~1915)은 이 시를 좋은 멜로디로 그려 놓았는데 시가 곡조에 의하여 산 좋은 예라고 생각된다. 도언은 전문 음악인이 아니었고 제재 기계회사 사장이었으나 열정적인 평신도였다. 그가 작곡한 2,200여곡은 그 대부분이 크로스비(작사자)와 합작한 것이다.

명콤비에 의해 명작이 나온 셈이다.

도서관은 여러분을 위해 문을 활짝 열어 놓았습니다.

우리 교회의 도서관은 신학 및 기독교 관제와 그밖의 많은 서적을 구비하고 성도들이 문헌을 통하여 은혜를 받으며 신앙에 관한 진리 탐구를 하도록 많은 이용을 바라고 있습니다.

- 3월중 구입한 도서 -

I. 신학도서 <동서>

1. 성경

- 1) 문답식강해-창세기~제지록 / 전4권, 강병도 지음, 기독교출판사, 1978.

2. 구약

- 1) 구약성경문해지 / 전2권, 황태준지음, 기독교문사, 1978.

3. 신약

- 1) 좁은문을 향하여 / 미우라 아야즈지음, 김찬국 옮김, 삼민교양선서, 1978. 261 P.

4. 철학

- 1) 사람됨의 뜻 / 이규호지음, 제일출판사, 1978. 197P.

5. 조직신학

- 1) 기독교론 / 벨코프, 루이스지음, 고영민옮김, 기독교문사, 1979. 784P.

6. 기독교윤리

- 1) 고난과 시험속에서 승리를-우물가에 선 여인 / 로저스, D. 에반스지음, 김의자옮김, 보이서, 1978. 345P.
- 2) 영적생활 / 존즈, D. M. 로이드지음, 서문강 옮김, 예수문서선교회, 1978. 475P.

7. 전도학

- 1) 전도의 종합계획 / 폴맨, R. E., 리스, 폴S 지음, 조동진옮김, 크리스찬헤럴드, 1975. 144P.

- 2) 교회부흥을 위한 연구 / 폴맨, R. E. 지음, 조동진옮김, 크리스찬헤럴드, 1972. 137P.

8. 목회학

- 1) 나의 하나님 나의 돈 / 브래, V. P. 지음, 조해수옮김, 한국기독교교육연구원, 1979.

9. 교육학

- 1) 생활지도의 원리와 실제 / 이영덕, 성원식지음, 교학도서, 1978.
- 2) 아동발달과 생활지도 / 교육출판사, 1974.
- 3) 교육계획 / 성범모, 김중철지음, 현대교육취서, 1966. 361P.
- 4) 미국의 실험교육 / 타운즈, 엘머지음, 조해수 옮김, 한국기독교교육연구원, 1979. 255P.

James D. Smart 지음
장 윤 철 옮김

285면 · 값 1800원
발행처 /

대한기독교 교육협회



이 책의 저자 James D. Smart 박사는 캐나다 장로교회 목사이다. 그는 캐나다 연합장로교회가 자유주의 노선으로 흘러갈 때 거기에 가담하지 않고 보수적 노선을 지킨 교회의 목사이다. 스마트 박사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목회를 하였다. 한편 그는 낙스대학에서 철학과 기독교 교육학 강의를 하기도 한 저명한 학자이다. 그가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는 1940년대 미국 북장로교 본부 교육부에서 교회학교의 Curriculum 을 새로이 편집할 때 그가 초빙을 받아 그 편집 위원장으로 일을 한 적이 있었다. 그가 중심이 되어 완성한 커리큘럼이 곧 기독교 신앙과 생활 (Christian Faith and Life Series) 인데 오늘날 까지도 미국 기독교 교육계에서 널리 사용되어지고 있는 커리큘럼이라고 한다. 본서는 그 내용의 중심부분을 소개한 책이다. 이 책이 우리나라말로 번역된 것은 1960년이었다. 그 후 이 책은 여러 신학교 및 기독교관계 학교에서 교재도 많이 사용되어 오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이 책의 내용은 모두 10장으로 되어 있는데 대개 다음과 같다. 제 1 장에서는 교회의 교육적 기능, 그리고 제 2 장에서 5 장까지는 기독교 교육의 역사적 고찰, 교육 목표 설정, 교육 프로그램의 제정 등에 대한 기본 원리와 실체가 소개되어 있다. 그리고 제 7 장은 커리큘럼에 있어서의 성경 제 8 장과 9 장은 인간의 성장, 기독교 가정에 대한 내용이 소개되어 있다.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의 가정의 위치, 가정교육의 중요성 등이 나와 있는데 참으로 유익한 내용들이 다루어져 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교회학교와 일반학교와의 관계문제를 취급하였다. 교회 교육에 대한 일반 학교 교육의 도전은 심각한 것이 사실이다. 이 책은 모두 285 page 밖에 안되는 분량이 그렇게 두껍지 않은 책이다. 그러면서도 그 내용이 대단히 좋은 책이라고 생각한다. 특별히 이 책을 우리 교회 주일학교 교사님들 여러분에게 추천하기를 주저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준교 강도사 (성경학원 전담지도)

시편에서 주는 주간의 만나

시 58 : 6~9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여 저희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꺾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 내시며……』

전능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여 악자와 정직한 자와 하나님의 공의를 위하여 사자와 같이 악하고 잔인하고 용맹스러운 자들의 어금니를 꺾어 주시옵소서라고 호소한다.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 나타나면 아무리 악하고 강한 자라도 아무리 계획이 치밀해도 꺾어지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의인과 정직한 자를 위하여 악한 자의 세력이 급히 흐르는 물처럼 곧 끝나게 해 주시며 악한 자의 계획을 꺾어 주옵소서.

달팽이가 습기가 적어지면 기한 전에 죽는 것처럼 악한 자들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속히 망하는 법입니다. 악한 자는 출세하려고 움직이나 실상은 망하느라고 움직이는 것이 됩니다.

악인의 성공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지 못한 성공이고 출세가 길 수가 없습니다. 가시나무 불로 밥을 지으려 할 때에 갑자기 태풍이 불면 밥이 되기 전에 불이 꺼지듯이 악인들이 성공하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법이니 하나님만 의지하며 감사하는 생활이 됩니다.

시 58 : 10~11

의인의 기도 응답

『의인은 악인의 보복 당함을 보고 기뻐함이며 그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이다』

의인이 어떤 때에는 억울함을 당하여 쫓기어 다니기도 하지만 반드시 악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꺾꾸러지는 것을 구경하게 됩니다.

악인이 망하는 것을 자기의 이해관계에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난 것을, 악자가 기를 꺾게되는 것을, 불신사회가 하나님의 영광의 심판을 알게 되므로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는 하나님은 의인의 편에 계시고 의인의 억울함을 덜어 주시고 무시하시지 않으심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악자들에게 억울함을 면케 하여 주기 위하여, 불신자까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알게 하기 위하여 악인에게 심판을 베푸시기를 부탁한다.

우리로 악인들이 끝까지 회개를 못할 때는 의인과 악자들을 위하여 심판을 부탁할 수 밖에 없고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시 59 : 1~5

탄 원

『나의 하나님이여 내 원수에게서 나를 전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다윗은 하나님을 섬길 때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모시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전능하시고 공의로우신 자비하신 하나님은 곧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며 나를 내 원수에게서 건져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까닭없이 일어나 나를 치려는 악마의 손이 미치지 못하게 나를 높이 들어 승리케 하시고 간사하고 악한 자에게서 나를 건져주시고, 악자와 정직한 자를 까닭없이 죽이기를 좋아하는 자에게서 구원하여 주시고, 원수에게 공격을 당할 때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탄원했습니다.

원수가 까닭없이 나를 죽이려고 열심을 내고 있으나 나의 하나님이여 깨어 나를 도와 주셔야 되겠다고 탄원하는 다윗처럼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정까지 살펴 달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시다.

시 59 : 6~9

오만하고 악한 자

『저희가 저물게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그 입으로 악을 토하며 그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원수를 밤에 짓는 개라고 하였다. 즉 정정당당하게 일을 못하는 자입니다. 어두운 밤중에나 사람을 물어 쫓는 개같은 종자. 불의의 세력에 앞잡이 노릇하면서 양심에 가책 조차없이 입에는 악을 토하면서 입술에는 칼이 있는 잔인한 말을 하면서 우리의 비밀을 누가 알겠느냐고 오만한 자리에 있게 됩니다.

저들은 천지가 자기의 천지인 것처럼 뽐내지만 하나님은 높은 보좌에 앉으셔서 저 악한 미련한 오만한 자들의 계획에 코웃음을 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할, 숨을 산성이시니 나는 하나님의 권능을 생각할 때에 아무런 환경에서도 나는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만과 악을 버리고 권능만 믿고 나아갑시다.



육군군목으로 입대

군대는 황금어장과 같아

전군 신자화 운동이 불기 시작한 지도 이제 꽤 오래 됐다. 그동안에 군전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고 여러 방면에서 군전도를 위해 애써 왔다. 우리 교회에서도 군전도에 많은 힘을 기울여 오고 있고 또 그 중요성을 절실하게 인식하고 있다. 보다 발전적이고 효과적인 군전도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느껴 오고 있는 터에 마침 우리 교회의 산업전도부 부지도 교역자인 김수성목사가 지난 4월 14일 군목으로 입대하게 되어 군전도의 한 부분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와같은 기회를 통해서 군전도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할 바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 바라며 김수성목사와 자리를 함께 해 본다.

“우리 교회에 오신지가 얼마나 되시지요?”

충현교회 출석한지는 13년가량되지요. 전도사의 일을 보게 된지는 76년 7월부터 이니까 만 2년이 조금 넘게 되지요.

“금년에 총신(연구원)을 졸업하였는데 언제부터 군목으로 가실 생각을 하셨는지요?”

군목지원은 신학교 1학년때 미리 시험을 쳐루게 됩니다. 거기서 합격하면 대학부, 연구원을 마친 다음에 가게되지요. 물론 1학년때 시험을 쳐볼 때는 뚜렷한 사명감이랄까 보다는 군대는 전도의 황금어장이라는 정도의 생각을 가졌었지요. 그런데 그후로 전군 신자화 운동이 일고 하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또한 군목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연 2회 국방부에서 나와서 훈련을 시킵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한번 해 볼 만한 일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목사님의 활동 계획이나 이런 편을 말씀해 주시지요”

여러 선배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볼때 군대는 실적 위주이고 보고 위주이니까 많은 경우에 거기에 휩쓸

린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거기서 떠나야 겠다. 그리고 계급을 의식하지 않고 일할 수 있어야 겠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숫자를 내 세우기 보다는 한사람이라도 올바르게 그리스도를 알고 받아 들일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계급사회라고 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세워 주셨으므로 그 위치를 지키면서 모든 일을 해 나갈까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전도위원회가 신설되면서 부터 특수전도에 신경을 쓰고 또한 군전도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직접 우리 교회 계시던 교역자가 군목으로 가시기에 상호간에 많은 도움이 될 줄로 압니다. 보다 효과적인 군전도를 위해서 어떠한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주일학교에서 일하면서 많이 느끼던 것이고 또 여러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던 것중에 하나가 교육이면 교육 그 자체를 위한 예산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치중하는 것보다 제 2차적인 면에 더 많은 투자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학생을 위한 교재연구, 학습연구 등 보다는 2차적인 식사, 간식, 행사 등에 치중이 많이 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군전도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적절적으로 발에 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군목을 지원하는 후배들에게 또 우리 교인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군전도면에서는 여기에 참여하는 군목들이 아무리 많이 투자를 하여도 자기 교회가 아니니까 빨리 나오려고 하는때 자기 적성에 맞는다면 매우 해 볼 만한 곳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효과를 매우 빨리 볼 수 있는 곳이라고 봅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이고 전국 각지로 흩어지는 곳이 군대이니까요. 또한 확실한 전략이 없다면 결코 황금어장이 될 수 없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가정이나 군대에 가 있는 자녀, 형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잊지 말고 그들의 영적 문제를 다루고 있는 군목들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신 표 근집사

(고등부 교사)

자아가 깨지면서

저는 국민학교의 어린 시절에 부안을 저희집 옆에 감리교회가 있어서 처음으로 교회에 가 보았는데, 아주 어릴 때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어쨌든에 대한 관심보다는 크리스마스때 나누어 주는 과자나 성극 등을 구경하는 것 등, 아주 어린애다운 호기심으로 갔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에 다닐 때는 누님이 장로교회에서 성가대 반주를 하셨기 때문에 누님과 함께 예장 합동측 교회에 나갔지만 매주일 교회 출석은 못하고 가끔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후 공군사관학교에 들어가 학습과 세례를 받았지만 믿음은 전혀 없는 상태였고 철저히 세속적이었으며 따라서 출세지향적인 생활을 해왔습니다. 말하자면 권력이나 재력이면 만사가 다 해결되는 줄 알아서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 노력해왔고 임관 후에는 다시 대학에 들어가 공부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일류대학이 아니면 대학이 아닌 것같은 오만한 생각을 가지고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을 다녔습니다. 대학시절 여동생들과 함께 충현교회엘 다녔는데 동생들은 믿음이 깊어서 교회일이라 하면 온갖 정성을 다 바쳤지만 제가 보기에는 교회에 대한 태도가 어리석어 보였고 종교는 생활의 일부일 뿐이지 생활의 전부일 수는 결코 없는 것이라고 타이르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교만한 마음으로 가득 차있던 저는 77년 2월 16일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일류학교가 아니면 학교가 아닌 것처럼 생각했던 제가 서울대학교 대학원 시험에 낙방했던 것입니다. 그때에 저의 심경은 저절로 수치와 패배감으로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야 저는 어떤 절대자에게 의지하고 싶었고 그 절대자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진실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철저하게도 오만덩어리로 가득 차있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깨어진 연후야야 비로소 겸손한 썩이 움트게 되었고 자아가 깨어짐으로 성령님께서 제 몸에 들어오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못하는 기도지만 더듬거려 기도를 드리지 아니할 수 없었고, 성경을 읽지 않을 수 없었으며 내 생활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서 기

뻐하시는대로 살고자 하였습니다. 그때서야 내가 죄인이었고 지난 날의 내 생활이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생활이었음을 깨달았고, 자기중심한 생활이 바로 죄악이었음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거듭나고서 부터는 생활이 변화되고야 말았습니다. 우선 출근하면 하루 일과가 성경을 읽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성경 속에 있는 진리에 눈이 떠졌고, 한 귀찮 한 말씀을 대할 때마다 감사와 찬양이 마음에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O.C.U. (기독교교회) 모임에 빠짐없이 나갔고 충현교회의 행사엔 거의 빠짐이 없이 다녔으며, 수요일 저녁 주일 저녁에배도 동네교회에 꼭 참석을 했으며, 어디서 부흥회를 한다 하면 틀림없이 찾아다니면서 은혜를 받곤 했습니다. 제 처가 안성여고에서 교편을 삼고 있었으므로 저는 자연히 안성에 내려가는 때도 많이 있었지만 교회에 빠지는 일은 한번도 없었고 안성 성결교회에서 부흥회를 할 때에도 한시간도 빠지지 않고 새벽, 낮, 저녁집회때 다 참석하여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얻게되어 감사와 희열을 느꼈습니다. 그후로는, 예전엔 꽃을 보고도 별 감흥을 느끼지 못했던 제가 중생의 체험 이후엔 비가 와도 감사하고, 해가 떠도 감사하고 들에 핀 풀 한포기에도 애착이 있습니다. 지루하게 들리지만 했던 교회의 설교가 이제는 저에게 한 말씀 한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어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말씀을 몹시 사모하게 되었고 방송설교에도 귀를 기울이게 되었으며 온전한 십일조도 기쁜 마음으로 바치게 되었으며 무슨 일이든지 그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확인하고 행하는 습성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 생활이 하나님과 연합한 생활이요, 하나님과 동일자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진실로 깨닫고 항상 감사하는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3장 이상 읽고 있으며, 가정생활에서도 먼저 기도가 앞서고 모든 일을 기도로서 시작하게 되었으며 그리고 사소한 일이지마는 기도에도 응답을 받기 시작하였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음해인 78년도에 서울대 대학원 독문과

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77년도에 중생 이후 저는 공사에서 특별연구수업발표회에 출전하여 1등상인 교장상을 받게 되었고 또한 이어서 공군대학 총장상도 받게 되었음은 전혀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였습니다. 이제는 저의 직업은 부업으로 여기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업을 본업으로 여기게 되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기 위해서 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생의 체험 이후엔 비가 와도 감사하고 해가 떠도 감사하고 들에 핀 풀 한포기에도 애착이 있습니다. 이제는 내 생활이 하나님과 연합된 생활이요, 하나님과 동업자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진실로 깨닫고 항상 감사하는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최고의 사람은 못될 망정 최선을 다 하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바입니다. 저는 복음을 이젠 부끄러워 하지 않게 됨은 바로 이 복음이 한 인간과 그 가정을 구원케 하고 영생을 주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요, 영생의 종교요, 희락의 종교요, 평강의 종교요, 승리의 종교요, 천국에의 영주권을 무료로 발급해 주는 종교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친구나 친지들은 대개 무신론자이거나 불신자이어서 거듭난 이후에는 그들과 어울리는 것이 부자연스럽게 되었고 현재로서는 거의 교제가 단절된 상태이나 앞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들에게 전도하여 하나님을 영접케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이 제신 줄 몰랐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이 명명백백히 살아계시며, 과거에 천지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우주만물을 섭리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약속하신대로 우리를 구원케 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틀림없이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은 젖을 먹는 어린아이 신앙이지 말 전도도 하고 싶고 천사도 흠모하는 교사 직분을 가져고 싶어서 지도자 양성부에 들어오게 되었으며 이번에는 집사와 고등부교사로 임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질 것이 있어야 줄 수 있음을 절감했고 성령님께서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지 않으면, 조명해 주시고 감화 감동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은혜에 깊이 감사드리오며 받은 바 달란트를 잘 감당하고 활용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지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성경통신 3 월호 정답)

번호	정답	번호	정답
1	라	36	땅이 입을 열어 삼켜버림
2	초막절	37	되살아난 아론의 지팡이
3	○	38	번치 않는 약속
4	다	39	나
5	다	40	다
6	3년	41	두 번
7	하나님	42	다
8	황무하게 됨	43	○
9	27:30	44	○
10	백성의 수를 세수함	45	요제벳
11	라	46	억호수아
12	603,550	47	32:15
13	회막	48	123
14	다	49	가
15	게르솜, 고향, 브라리	50	○
16	유다	51	나
17	구별된 자	52	자기 조상의 지파사람
18	민 6:24-26	53	다
19	×	54	아낙
20	갓	55	다
21	가	56	가감하지 말고
22	다	57	마음
23	함께 나아온 이방인들	58	십계명
24	모세	59	헛되이, 거짓되이
25	탐욕의 무덤	60	출 20:8-11
26	나	61	다
27	모세가 구스여자를 취함	62	말씀
28	유다 지파	63	북, 지주
29	헤브론	64	가
30	×	65	나
31	애굽	66	○
32	14:8	67	나
33	잠명명으로 치리랴	68	3차
34	나	69	하나님이 미워하심
35	염병	70	다

※성경통신은 매월 첫주 성경학원에서 발행합니다. 성경통신을 학시기 원하는 사람은 성경학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약의 윤리관 (1)

김 하 진 목사

(부목사)

우리는 먼저 기독교적 윤리를 다룰 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구속을 떠나 생각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그가 세상에 오심도, 십자가에서의 무리한 죽음도, 모두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다. 이같이 기독교 윤리는 십자가 위에 기초한 것이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도덕 생활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역사적이며 구속적인 계시에 기초해서 결정되어 지는 것이다. 그 이상이란 사람의 창안이 아닌 하나님의 계시이다. 또한 사색적인 것이 아니고 역사적이며, 참 인간이며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에서 우리의 생활과 이상의 궁극적인 기초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또한 그리스도인의 도덕생활과 이상을 타 종교의 것과 구별케 하는 것이며, 타 종교에서 이루지 못하는 참다운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힘이기도 하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신약에 나타난 도덕적 이상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I. 신약의 도덕적 이상

1. 사랑이 그리스도인의 도덕 생활의 중심이다

여기에 대하여 예수님은 마 22:36-40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이 율법의 대강령이라고 말이다. 이같이 사랑

* 연재 순서 *

- | | |
|-------------------|-----------------|
| 1. 기독교 윤리란 무엇인가. | 1) 사랑의 실천 |
| 2. 구약에 나타난 윤리적 사상 | 2) 하나님 나라 형성 |
| 3. 신약의 윤리관 | 8. 생활속의 윤리 |
| 1) 신약의 도덕적 이상 | 1) 결혼과 가정, 이혼문제 |
| 2) 예수님의 교훈(윤리관) | 2) 경제와 윤리 |
| 4. 윤리적 주관자 인간 | 9. 사회속의 윤리 |
| 5. 초대교회의 윤리적 배경 | 1) 기독교와 인종문제 |
| 6. 윤리적 척도인 양심 | 2) 국제질서·전쟁·평화 |
| 7. 크리스찬의 윤리적 이상 | 3) 기독교 윤리와 문화 |

은 근본적이며 포괄적인 최대의 계명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새 계명의 본질도 사랑이라 하셨다. (요 13:34, 35. 15:12, 17) 베드로도 피차 서로 사랑할 것을 가르쳤고(벧전 1:22), 야고보도 최고의 법을 성취하는 것은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약 2:8)이라고 말했다. 사도 바울도 이웃을 사랑함이 그리스도인 생활의 중심으로 보았고(갈 5:14, 롬 13:16) 디모데에게도 가르치기를 계명의 대지로 사랑이라 하였다. (딤후 1:5, 골 3:14 참조) 그리고 바울은 고전 13장에서 사랑이 모든 덕의 어머니요 (1~3절), 항구적인 덕이며 (4~7), 기독교의 모든 은사 중 최대의 것이라 하였다. (8~13) 그는 또 말하기를 성령의 열매 중 사랑이 첫째라 했고(갈 5:22), 그의 서신 여러곳에서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살전 3:12, 13, 롬 12

이것은 주관적으로 구속의 경험에 뿌리를 박았으며 성도가 자기를 위하여 성취한 구속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나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나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는 것이다.

: 9, 10, 고전 16:14)

요한도 하나님을 사랑함이 그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말했다고(요일 5:3),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한다(요일 4:16)고 말했다. 또한 형제를 사랑함은 그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는 표(요일 3:14)요, 어둠에서 빛으로 옮긴 것이며(요일 2:10), 서로 사랑함은 그의 수신자들이 처음부터 들은 말이다(요일 3:11) 하였다.

이와 같이 사랑은 도덕 생활의 중심임을 말하고 있다.

2. 사랑의 특성

1) 이것은 교상한 도덕으로 무엇을 얻으려 하지 아니하고 자신(自我)을 나누어 주는 것이다.

신약에 있어 사랑(아가페)의 관념은 자연 발생의 정서가 아니라 의지로 인하여 결정된 품성(Character)의 표현이다. 이것은 자기의 생명의 최고 표현으로 자기 자신을 타인에게 주는 것이다.

2) 이것 기독교 신앙에 근거한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대상으로 하고 내용으로 하는 신앙, 즉 그리스도와 그의 속죄하심을 통하여 나타난 바 죄인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수납하는 신앙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은 기독교 사랑을 낳는다. 또한 믿음은 사랑에 선행하고, 이 사랑의 실천은 항상 신앙으로 되어 져야 한다. 이같이 기독교 사랑은 신앙에 뿌리를 박고 있다. 이것은 주관적으로는 구속의 경험에 뿌리를 박았으며, 성도가 자기를 위하여 성취한 구속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기도 하다. (요일 4 : 10, 11) 다시 말해 나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나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는 것이다.

3. 하나님은 사랑의 최고 대상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악을 미워하는 것이 신약이 보여 준 윤리적 사상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라 말씀하셨다. (마22 : 36-40) 사람을 사랑하는 모든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매일의 생활에 있어서 기독교 사랑의 실행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이상을 실현하고자 노력함에 완전한 모범을 보이셨다. 그러므로 신약에 있어서 모든 도덕적 노력은 더욱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것으로 표현된 것이다.

는 사랑으로 인하여 결정될 때에만 참된 사랑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므로 형제를 사랑한다. 그러므로 부모나 처자, 형제 자매보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마10 : 37, 눅14 : 26)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함은 죄와 떼어 놓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유지함은 성경적일 뿐 아니라 윤리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최고의 이시기 때문이다.

4. 타인은 사랑의 제이 대상이다.

기독교 사랑이란 어떤 개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인류를 포함하고 있다. 한 사람이라도 사랑 밖에 제외될 수 없다. 그런데 타인에 대한 기독교적 사랑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잘 나타나 있다. (눅10 : 25-37) 또한 예수님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마 7 : 12)는 말씀에서 타인에 대한 사랑의 규범을 보여 주고 있다.

황금률이라 부를 수 있는 이 말씀이 뜻하는 바를 몇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보자.

1.) 다른 사람을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 참 목적을 가진 인간으로 취급하여 그것을 실현하도록 우리의 힘과 기회가 미치는대로 그들을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많은 죄악 중에 하나가 타인을 목적을 가진 인간으로 인정치 않고 그들 사랑하는 대신 이용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새 계명의 본질도 사랑이라 하셨다. 베드로도 피차 사랑할 것을 가르쳤고 야고보도 최고의 법을 성취하는 것을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 단순히 피동적, 또는 소극적인 태도로 해를 주지 아니함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복을 증진케 하기 위하여 적극적이며 건설적인 행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기독교 황금률은 소극적이 아니라 적극적이기 때문이다.

3.)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때에는 유족한 분량으로 하여야 한다. 이것을 기독교 사랑의 잉여 원리(Plus Principle)라한다. 이러한 황금률의 원리를 산상수훈 중 다른 곳에서도 가르치셨는데, 그것은 마 5 : 38-47에서 복수를 금하셨을 뿐 아니라 용서하고 사랑할 것을 요구하신 것이다. 원수까지라도 사랑하고 용서하는 잉여의 원리, 즉 사람에 대한 개인적 태도는 공법의 시행을 금하는 것만이 아니었다. 이와같이 예수님의 사랑의 정신을 복수가 아니고 용서할 준비를 가지고 용서하는데 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4.)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의 실행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최대의 모범이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매일의 생활에 있어서 기독교 사랑의 실행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이상을 실현하고자 노력함에 완전한 모범을 보이셨다. 그러므로 신약에 있어서 모든 도덕적 노력은 더욱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것으로 표현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서 친히 모범을 보여주셨다. 예수님께서서는 형제를 사랑함에 있어서도 겸손과 용서와 극기와 봉사와 희생함으로 본을 보이신 것이다. 예수님 자신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요13 : 1-17) 본을 보이셨고, 예수님 자신이 당하는 고난과 죽음 자체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인류를 섬기려 하는 일에 본이 됨을 가르치셨다. (마20 : 20-28)

이와같이 기독교 사랑을 실행함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은 사랑의 완전한 자리에 나아가도록 목적을 정하고 힘써야 할 것이다. (마 5 : 48)

선교월보

인도네시아 - 서만수선교사

온 교회가 함께 마음 조리면서 응답되기를 기도하던 비자연장 문제가 드디어 해결되었다. 비자연장기간은 1년이며 아무 단서가 붙지 않은 가장 좋은 조건이다. 일부는 6개월, 최종 6개월, 혹은 대부분 언제 비자가 나올지 여부를 알지 못한 채 막연히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비자연장을 받았으니 금년 계획은 동부 자바 및 서부 뉴기니아 순회집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금년 오지사역자 파송목표는 80명. 이 중 홍콩한인교회에서 매달 16명분을 담당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남일교회와 성산교회에서도 각 1명씩을 부담하고 있다. 1명당 \$ 30.

* 기도제목

1. 비자연장에 대한 감사의 기도
2. 금년에 풍성한 전도의 열매가 맺도록

홍콩 - 홍종만선교사

1. 건강상 일시 귀국 중이셨던 사모님 출국하시고 따님 회숙양도 출국함.
2. 김의환목사님 중공방문 (2.5~16)
3. 인도네시아에 선교현금송금 (H \$ 2,650)
4. 구룡지역 노방전도 실시
5. 마카오의 대중공 방종전도비 송금 (H \$ 300)
6. 홍콩지역 가두노방전도 실시
7. 중국선교단체인 중화신학원 방문



〈천진에서 귀국한 이 웅씨와 대답하시는 홍종만 선교사 - 중국대륙 선교준비를 서둘러야 겠다.〉

* 기도제목

1. 선교사 가족의 건강과 자녀 교육문제
2. 중국대륙 선교 계획과 준비를 위해

애굽 - 이연호선교사

1. 쇼부라·해협야교회 집회 인도
2. 빈민촌지역에 교회설립과 성경 보급을 위해 아슈트지역 등 답사
3. 사무엘과 모나 두 가정 심방하고 구제금 전달
4. 카톨릭신학교 방문
5. 신학교에서 계속 강의 중에 제심
6. 사모님은 도서관에서 계속 근무 중이심
7. 4월경 일시 귀국 예정

* 기도제목

1. 선교사님의 가족의 건강을위해, 이 선교사님은 성경과 소화기 관계로 사모님은 심장병으로 고생하시고 제심
2. 자녀들의 교육문제

서독 - 육호기선교사

1. 주일 예배시간을 변경함.
① 비스바덴교회 (30-40명) : 오후 4시 (주일오후 ~목)
② 뤼트부르크교회 (20-25명) : 오후 12시 15분 (금~주일오전)
2. 교우 병환환자가 많이 발생 (독감)하여 심방을 많이 함
3. 3.1절 특별기도회를 실시
4. 3월은 특별교육의 달로 정함
5. 성경 읽기 운동전개
6. 학습 및 세례준비
7. 교인 직장 심방

* 기도제목

1. 두 교회의 부흥 발전을 위해
2. 교인들의 건강을 위해
3. 유럽 선교의 중심지가 되도록

호주 - 김태현선교사

1. 한인 야외친교 모임에 참석 전도함
2. 가정 심방 (11회)
3. 금년도 전도사업 1차 계획은 지역사화를 이하는 것과 전 한인교회의 전교 일화 운동을 위한 기도이다.

해외복음선교회가 제공하는 선교월보

* 기도제목

1. 한인교포들의 신자와 운동을 위해
2. 교회의 부흥을 위해

일 본—유병세 평신도선교사

1. 이윤호권사님 출국
2. 교회 성전 마련 (대지 104평, 건평 86평)
3. 시 2:10-12 “성별된 자의 일상생활”이란 제목으로 설교

4. 외래환자 및 입원환자 전도
5. 가두노방전도 실시

* 기도제목

1. 선교사님내외분께 계속 전도의 능력이 임하도록
2. 교회의 부흥을 위해

서 독—박용삼 평신도선교사



〈카이로 중심번화가에서 모슬렘들이
알라신에게 경배하는 모습〉

1. 여름학기 (4월중순~7월중순)엔 바이엘 하우스 박사의 선교세미나에 수강할 계획
2. 박사학위 과정을 위해 계속 연구중

* 기도제목

1. 대부분의 모든 분야에 있는 학자들이 성경 밖에서 방황하고 있는 독일학계의 실정을 위하여
2. 박선교사님의 연구 과정을 위하여

선교 본부—충현교회 해외복음선교회

1. 실무행정자들을 위하여
2. 선교회원의 확대와 경비를 위하여
3. 선교주일학교를 위하여
4. 각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위해
5. 각 선교사님의 자녀교육 문제를 위해
6. 인도네시아 선교후보자를 위해
7. 홍콩에서 있을 선교사세미나를 위해
8. 오스트리아 선교사과송 청원을 위해

특별 선교 보고

애굽에 있는 이연호선교사님은 1979년 2월 26일부터 28일까지 애굽의 가난한 농촌에 지교회 모집과 성경보급을 위하여 카이로에서 390km 떨어진 아슈드 농촌과 사막가운데 있는 벨민촌을 답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보고해 왔다. 즉 그들은 농촌과 사막 가운데 기독교인 동네가 있는데 이곳은 그들의 조상이 기독교인이므로 그 이름의 유산만 물려받아 기독교인 동네가 될 곳이고, 실질적으로는 교회가 한군데도 없으며 오히려 오랜 세월동안 모슬렘교도들과 국가에 의해 정치적, 제도적으로 차별대우를 받으며 가난하고 배참한 생활을 해오고 있는 동네들이다. 그들의 생활은 원시적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으므로 가족들과 함께 토담집에 거주하며 소외된 지역으로 남아있는 곳이다.

이들에 낙심하지 않도록 기도과 쟁성으로 후원하고 영적, 정신적인 안식처인 교회가 필요하며, 영혼을 배불리 먹여줄 성경을 보급해야 될 필요가 절실하다. 한 사람의 원주민 전도자를 이곳에 보내려면 월 30~40불 정도나 된다고 하는데 사명감이 있고 열심있는 원주민 전도자의 파송과, 지교회 설립과, 그리고 성경보급이 시급히 이들에게 요청된다고 본다.

이를 위해 온 교인이 특별히 기도해야겠다.

구역공과

...지난해부터 구역 예배 시간은 성경공부를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역예배시에 사용하는 성경공부 교재인 이 구역
...공과는 7년 과정으로 장세기 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공부할
...수 있도록 짜여져 있습니다.

제19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읽을말씀 : 출20 : 8 - 11 31 : 13 - 17

제4계명은 우리의 시간 중 **누를** 성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안식일로 삼으라는 말씀이다. "안식일"(shabbath)이란 말은 "그치다" "그만두다" "쉬다"는 뜻이다.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은 7일 중 하루는 쉬라고 하셨다. 기독교는 피곤한 인생들에게 안식일을 준 종교다. 안식일은 기독교에만 있고 기독교의 감화를 통해서 이제는 전 세계에 안식의 축복이 미친 것이다. 기독교는 안식의 축복을 주는 종교다. (마 11 : 28)

1. 안식일의 필요성

우리 인간의 심신은 때때로 안식일을 필요로 한다. 쉬는 가운데 피로가 회복되고, 병도 낫고,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실상은 일을 더 많이 하고, 모든 일을 바로 한다.

또한 안식일은 심령을 위해서 절대로 필요하다. 우리는 육신생활을 위해서 6일 동안 힘써 일해야 하지만 그로인해 우리의 심령이 매마르거나 침몰되어서는 안된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날이 필요하다. 우리의 심령이 어두워지지 않기 위해서,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과 접촉하기 위해 안식일이 절대 필요하다.

2. 이 계명을 지킬 이유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친히 정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성별하신 날이다. (출20 : 10)

그러므로 안식일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다.

그리고 이 날은 하나님이 축복하신 날이다. (창 2 : 3 출20 : 11) 하나님은 이 날을 축복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고, 거룩히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날을 속되게 하거나 그 시간을 다른 보통 시간과 똑같이 여겨서는 안된다.

또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제7일에는 휴식하는 모범을 보이셨다. 안식일은 천지창조의 과일이

완료되면서 시작되었다. 우리는 창조 때의 안식을 기념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영원한 안식일을 대망하면서 매주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3.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 날 종일을 거룩하게 함으로 지내야 한다. 직장에서나 그 밖의 세속적인 어떤 일도 하지 말아야 한다. 안식일 계명의 역점은 쉬는 데 있다. 이 쉬는 육체적인 모든 노동을 중지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성경은 그 실천이 가장 어려웠던 "파종 때와 추수 때"라도 일을 쉬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쉬는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출34 : 21, 렘17 : 21-22). 안식일은 너무나 중요한 날이어서 하나님의 안식일을 더럽히는 것은 하나님께 불경죄(不敬罪)를 범하는 것이요, 그러한 자는 사형에 처했다. (출31 : 14, 35 : 2, 민15 : 32-36, 렘17 : 27)

그리고 이 날에는 오락까지 금해야 한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데 이 날에 다른 것을 즐거워하여 시간을 보낸다면 그것은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하는 무서운 죄를 범하는 것이다.

또한 이 날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별하고 거룩한 예배에 시간을 써야 한다. 하나님께만 찬양을 드림으로써 이 날을 거룩히 지켜야 한다. 원다고 해서 아무 것도 안하고 노는 날이 아니다. 공적 또는 사적예배에 사용하는 날이다.

그리고 이 날에는 선한 일, 복음을 전파하는 일, 병 고쳐주는 일, 다른 사람을 돕는 그런 일은 해도 괜찮다. (마12 : 9-21)

여기 특별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다. 분주한 가운데 안식일을 잊어버리기 쉽다. 구경가느라고, 공부하느라고, 잊어버리는 자들이 있다. 아무리 분주해도 이 날을 꼭 기억하여 바로 지킬 줄 알아야 한다. 안식일은 마치 매마른 광야길 같은 인생행로에 있는 오아시스와 같은 것이다. 샘물과 같다. 매 안식일에 생명을 마셔야 우리의 생명이 산다. 오늘날 우리들이 누리는 안식일의 복락은 이 다음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누릴 하늘의 그랜드이다. 그러므로 이 날을 성별해서 지킬 줄 모르는 자는 장차 영원한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

4. 안식일과 주일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안식일에 예배하지 않고 주일에 예배했다. 그리스도인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놓여있기 때문이다. (롬6 : 14)

제20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읽을말씀 : 출20 : 12, 엡 6 : 1-4

사도 바울이 기록한 딤후 3 : 1-3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을 두고 기록한 말씀이다. 오늘날의 세대는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짓밟는 일을 예사로 알고 있다.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저들의 부모를 멸시하며, 또 부모들의 애원을 외면하고 있는가?

처음 네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치고, 나머지 여섯 계명은 다른 사람들을 내 자신처럼 사랑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 다섯째 계명은 우리의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서 부모님은 우리가 만나는 첫번째 사람들이다. 우리가 낯 모르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존경하기 전에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기를 배워야 한다.

1.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할까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실 때 먼저 자녀된 자들이 자기네 부모님을 어떻게 모셔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신다. 가족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제도이다. 가족은 온 인류 사회의 기초다. 그러므로 가족이 부패하면 교회도 부패하고, 국가도 부패한다. 또한 자녀와 부모간에 올바른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으면 그 가정은 불행하다.

① 존경과 경외심을 가지고 공경

다른 사람들은 내 부모를 어떻게 보든지 우리는 자기 부모를 높여야 한다. 우리는 결코 우리 부모님들을 “늙은이” 또는 “할망구”라고 부를 수가 없다. 어떤 애기 가운데서라도 우리 부모를 내가 높일 줄 알아야 한다.

우리가 우리의 생명 자체를 부모님들에게서 물려 받았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다.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 부모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여 지금까지 살아있게 해주셨다.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은 가히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에 흡사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부모님들에게 큰 빚을 지게 한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에 대한 감사를 드려야 한다.

② 순종함으로 공경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롬13 : 1)

이 말씀은 가정, 국가, 교회 등 모든 경우의 권세에 다 해당하는 말이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어느 정도의 권위를 부여하셨다. 특별히 하나님은 부모님들을 신적 권위로 덧입히셨다. 우리의 부모님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들이시다. 우리가 우리 부모님들을 불순종할 수 없는 것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불순종할 수 없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부모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죄와 불행을 결과시킬 뿐이다.

엡 6 : 1에 보면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했다.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순종치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 그것은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될 때이다. 그리스도를 추종할 것이냐, 아니면 세상의 어떤 다른 사람을 따를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먼저 따라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상반되지 않을 경우에는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

③ 부모님들을 봉양하며 공경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 중의 하나는 사람들이 늙고 병약해졌을 때 그들을 어떻게 하는가 이다. 때로는 늙은이들이 귀찮고 참으로 성가신 존재이기도 하다. 그러나 자녀들의 의무는 부모님을 끝까지 돌보아 드리는 것이다.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마땅히 연로한 부모님들을 봉양해야 한다. 입으시는 것, 잡수시는 것, 모든 면으로 그러해야 한다.

2. 부모 공경하는 자가 받을 축복

출20 : 12, 엡 6 : 2-3, 신 5 : 16에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받는 축복은 성공과 장수의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축이라고 말씀하신다. (출 21 : 15, 17, 잠 20 : 20)

우리는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강대국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도록 교육시켜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뜻이다. 올바른 자녀들은 올바른 시민이 될 것이다. 올바른 기독교 시민은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에 가져 올 것이다. 우리 국가의 안보는 군대의 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사람됨에 달려있다. 순종할 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부모 공경하는 백성의 나라는 그 땅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

28 페이지에서

주일의 첫날을 주님의 날 즉 주일(主日)로 지키는 이유는 ①막16 : 9, ②요20 : 19, 26 ③눅24 ④행2 : 1 ⑤행20 : 7 ⑥고전16 : 2,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주일의 첫날을 주님의 날로 지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 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막 11:24)

3월중 새 교우 명단

새 교우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우리기도

1. 금년에는 우리의 모든 힘을 **새성전 건축**에 쏟기를 원합니다. 하루 속히 아름다운 성전을 이룩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2. 인도네시아의 서만수 선교사, 홍콩의 홍종만 선교사, 애굽의 이연호 선교사, 서독의 육호기·박용삼 선교사, 호주의 김태현 선교사, 일본의 유병세 선교사의 **든 복음사역**이 주님의 뜻 안에서 원만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도 합니다. 이복에 있는 우리 동포들, 무너진 제단들을 하루속히 일으켜지는 축복을 주옵소서.
3. 우리 교회의 모든 교역자들에게 **갑절의 영력**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어 본 교인들을 먹이고 키우는데 영육간에 조금도 피곤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4. 장로와 권사, 집사, 구역장, 권찰, 성가대원들이 자신의 맡은 바 직책에 **충성**하며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가운데 주님을 위한 귀한 사역자가 되게 하옵소서.
5. **15부 주일학교**에서 자라나는 주일학교 학생들이 명실공히 천국일꾼으로 키워지게 하시고 이들을 위해 애쓰는 주일학교 교사들이 어디에 가든지 예수님의 사람들로 부족함이 없게 세워 주옵소서.
6. 주의 이름을 위하여 세움 받은 주님의 종들과 **한국 모든 교회**들을 축복하시사 5천만 우리 겨레가 모두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나라의 정치를 맡은 **위정자**들과 사회각계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 할 줄 알게 하옵시 우리나라 산업의 계속적인 부흥 발전을 이루어 주옵소서.
7. **공산치하**를 비롯하여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헌신하 주님의 종들과 세계의 모든 교회위에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공산세계**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갇힌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하루속히 자유로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날을 주옵소서. 자유진영의 정치, 경제, 사회지도자들이 자기의 책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정치를 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가난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 **아시아**의 여러나라들이 하루 속히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정복 당하게 하옵소서

○제 1 지구

- 장신②구역 / 이동석
- 광희①구역 / 한하종 중구 광희동2가 67번지 9동3반

○제 2 지구

- 광희문구역 / 채귀순
- 풍 남구역 / 백정현
- 망 우구역 / 장덕철
- 풍 남구역 / 김영환
- 쌍림②구역 / 김인필 중구 쌍림동 151~132
- 풍 남구역 / 김정남
- 마 장구역 / 조금영 성동구 마장동 451~5 홍문인쇄사
- 태 능구역 / 유경구 경기도 양주군 미금면 호평리
- 태 능구역 / 권경열 경기도 양주군 미금면 호평리
- 광화문구역 / 한연순
- 면목②구역 / 이경남
- 면목①구역 / 이윤애 동대문구 망우동 474~37

○제 3 지구

- 강남②구역 / 황경희
- 강남①구역 / 정태영
- 청담②구역 / 명태일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 Apt 6동 201호
- 청담②구역 / 송정화
- 압수①구역 / 신규태 성동구 압수동 서울신학교 기숙사
- 이태원구역 / 김경희
- 성 수 구역 / 임미철
- 옥수①구역 / 안경자 성동구 옥수동 8~1, 3동5반
- 압구정구역 / 이은순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 Apt. 71동 302호
- 자 양 구역 / 김장석 성동구 자양동 218~17, 21동6반
- 옥수②구역 / 박형민 성동구 금호동 4가 215, 6동4반

○제 4 지구

- 필동③구역 / 윤태영
- 마 포 구역 / 김수옥 마포구 도화동 7~20
- 대 방 구역 / 김선화 관악구 대방동 351, 12동 1반
- 마 포 구역 / 박용기 마포구 아현 1동 415~4, 37동3반
- 인현①구역 / 이진문 중구 충무로 4가 6~5
- 인현①구역 / 박태순 중구 충무로 3가 37~1
- 인현②구역 / 조규정 중구 충무로 4가 15~3, 7동2반
- 사 당 구역 / 임형빈 관악구 사당동 42~12, 1동4반

- 신 길 구역 / 최희춘 영등포구 영등포1동 580~24, 15동1반
- 후 임 구역 / 민순자

○ 제 5 지구

- 정 문 구역 / 권창숙
- 화곡①구역 / 원종택
- 서문①구역 / 박성의 서대문구 충정로 3가 164, 13동4반
- 서 교 구역 / 김성숙
- 불 광 구역 / 최희희
- 불 광 구역 / 강희도 서대문구 녹번동 35~99, 33동 2 반
- 신 촌 구역 / 장석준 서대문구 아현 3 동 1~2
- 응임①구역 / 최승희 서대문구 신사동 23~5
- 역촌②구역 / 나미숙
- 응임①구역 / 김영철 서대문구 신사동 270~12, 1동4반

* 축하합니다. (3월 중 결혼)

- 이선만군 / 이상덕집사 장남과 임정숙양 / 이육란씨 3년 1월 12시 본 교회당에서
- 양병진군과 장정숙양 / 주교교사, 1일 오후 2시 본교회
- 위윤재군 / 김복심집사 장남, 3일 오후 2시 강남중앙 침례교회에서
- 홍훈식군 / 제 2 성가대원과 노인숙양 / 주교교사, 12일 12시 본 교회당에서
- 김영취군 / 김동원집사, 김경희 권사 장남과 이육균양, 13일 오후 2시 본교회당에서
- 박영철군 / 최영호집사 아들, 17일 오후 1시 새문안교회
- 석정남군 / 석근형씨, 정순자권사 3남, 20일 오후 1시 30분 행복예식장에서
- 남용승군 / 남은균씨, 황성례집사 장남과 김순련양 / 주교교사, 21일 오후 1시 기독교 태화관에서
- 강만성군과 한옥봉양 / 한영기집사 장녀, 22일 11시 엠 배서더 호텔에서
- 김영민양 / 김영구씨 동생, 24일 11시 30분 행복예식장
- 우미희양 / 강남구역 우영식씨 2녀, 22일 12시 30분 자택에서
- 박성남군 / 이촌②구역, 손학선양, 24일 오후 2시 이화 예식장에서
- 오인환군과 김희영양 / 황지영집사 딸, 26일 오후 1시 엠배서더 호텔에서
- 송선자양 / 송주호장로 장녀, 27일 오후 1시 영락교회
- 전은배군 / 전희문장로 2남, 28일 오후 1시 기독교 태화관에서
- 임영일군 / 박선자권사 3남, 29일 오후 2시 부산
- 김상호군 / 김원선집사, 김옥래집사 장남, 31일 오후 1시
- 장정남양 / 제일성가대원, 27일 오후 2시 Y.W.C.A.
- 김영한군 / 전 성경학원 강사, 30일 오후 2시 정동교회
- 최명화양 / 전순자권사 딸, 30일 오후 1시 부산중앙교회

구역장 수첩③

예배모범(1)

김 재 창 목사
(구역권찰회 회장)

제 1 장. 주일을 거룩히 지킬 것.

1. 주일을 기념하는 것은 사람의 당연한 의무이니 미리 육신의 모든 사업을 정돈하고 속히 준비하여 성경에 가르친대로 그 날을 거룩히 함에 구애가 없게 하라.

2. 이 날은 주일인즉 종일토록 거룩히 지킬지니 공동회집으로나 개체로 예배하는 일에 힘이 옹으며 종일토록 거룩히 안식하고 위급한 일 밖에 모든 사무와 육신적 쾌락의 일을 폐할지니 세상 염려와 속된 말도 금함이 옳다.

3. 먹을 것까지라도 미리 준비하고 이 날에는 가족이나 집안 사환으로 공동예배하는 일과 주일을 거룩히 함에 구애가 되지 않도록 함이 옳다.

4. 주일 아침에는 개인으로나 혹은 권속으로 자기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되 특히 저희 목사가 그 봉직하는 가운데서 복 받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성경을 연구하며 묵상함으로 공동예배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준비하라.

5. 개회때부터 일일단합함으로 예배 전부에 참여하기 위하여 정한 시간에 일제히 회집함이 옳고 마지막 축복기도할 때까지 특별한 연고 없이는 출입함이 옳지 않다.

6. 이와같이 엄숙한 태도로 공식예배를 마친 후에는 이 날 남은 시간을 기도하며 영적 수양서를 읽되 특별히 성경을 공부하며 묵상하며 성경문답을 교수하며 종교상 담화를 하며 시편과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부를 것이요 병자를 방문하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며 무식한 자를 가르치며 불신자에게 전도하며 경건하고 사랑하며 은혜로운 모든 일을 행함이 옳다.

※ 주일을 이와 같이 거룩하게 지켜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1)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며 그에게 찬송과 영광 돌리는 날이며

2) 예수님의 구속사업의 완성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3)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오늘은 부활 주일

오늘은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 주일이다. 기독교의 많은 명절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는 부활주일은 우리 기독교가 생명의 종교임을 증거하여 주는 절기이기 때문이다.

부활절을 맞으며 전교단적으로 여의도 광장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경배하는 부활절예배가 드러

진다. 우리교회에서도 부활주일을 맞아 부활절 특별예배가 12. 3. 4부 예배시간에 드려지고 각부주일학교에서는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며 기뻐하는 갖가지 행사를 갖는다. 또한 오늘 저녁에는 제이성가대의 찬양의 메시아 2·3부를 공연하며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한다.



(지난해의 부활절 축하 음악예배)

제 1 회 어린이 초청

전도집회 실시

주일학교 어린이 새 신자부, 유년부, 초등부가 합동으로 어린이 초청 전도집회가 지난 3월 24일 열렸다.

교회 부근의 영화국민학교의 교회 안 나오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토요일 오후 시간에 실시한 이 전도집회에는 400여명의 어린이가 참여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23일(금), 24일(토) 아침 8-9시에 교사들이 영화국민학교 앞에서 전도지와 초청장을 나누어 주고 24일 오후에 참석한 어린이들에게 찬송, 말씀등으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성경암송대회— 5 월 27일에

마태복음 5—7 장 (총 111절)

교회는 매년 봄, 가을에 실시해 온 성경암송대회를 금년에는 5월 27일 주일에 실시하기로 하고 그 요강을 발표했다.

1. 암송범위: 마태복음 5-7장 (총 111절)

- 가. 영아부...5:3-10 (8절)
- 나. 유치부(꽃반).....5:1-13 (13절)
- 다. 유치부(열매반).....5:1-16 (16절)
- 라. 유년부 (1, 2학년).....5:1-27 (27절)
- 마. 유년부 (3학년).....5:1-33 (33절)

520명 문답 마쳐

한편 지난 주간에 있었던 문답식에서 문답을 마친 사람은 520명에 달하며 지난 주일 성찬식에 참여하여 총 3414명이 수찬하였다.

각 구분별 문답자 수는 다음과 같다.

구분	성별	남	여	계
학 습		69	148	217
세 례		86	128	214
유 세		43	25	68
입 교		9	9	18
개 종			3	3
계		207	313	520

장로취임·장립식

—오는 4월 30일에—

지난해 11월 12일 장로투표에서 피선된 고병욱장로와, 신현상·김경철·우기전·손동운·노광현 집사의 장로취임·장립식이 오는 4월 30일(월) 저녁에 본 교회당에서 베풀어 진다.

이들은 그동안 장로로 피택된 후 교회의 시험을 통과하고 이번 취임·장립을 받게 된 것이다.

바. 초등부...5:1-48 (48절)
사. 중등부—장년부.....5:1-7:29 (111절)

아. 노년부...5:1-48 (48절)

2. 실시요령: 지정된 성경범위를 가능한 많은 분량을, 가장 정확하게 암송하는 것을 기준으로 평가 함.

3. 시 상

- 가. 영아부: 고등부: 각 부 별 3등까지 시상
- 나. 18-69세: 각 연령층 별 로 3등까지
- 다. 노년부: 3등까지 시상
- 라. 기 타: 동위자에 참가 기념품

주교 유치부

주간성경학교 개교



〈유치부는 주간 성경학교를 개교했다.〉

주일학교 유치부는 지난 3월28일(수) 주간성경학교 개교예배를 당회장 김창인 목사는를 비롯한 교회의 여러 어른들을 모시고 드렸다.

이는 주일 하루의 몇시간의 교육으로는 소기의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어 평일에 까지 주일학교를 확대하여 교육을 실시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주간 성경학교는 앞으로 매주 수요일 오전 9시~12시 까지 모이게 되는데 이 시간에는 말씀과 생활지도(신앙상담, 인사성, 도덕성, 사회성, 청결성, 발표력등) 및 특활지도(찬송 및 율동, 미술, 과학, 창작활동등)으로 짜여진 교과과정에 의해 실시하게 된다.

교사 단기 수련회

4월 23, 24일 양일간에

교육위원회가 주관하는 교사 단사 단기수련회가 오는 4월 23일, 24일 양일간 매일 저녁 7~9시까지 열린다.

이 훈련은 1979년에 계획된 교사단기훈련 계획에 의거, 연수의 교사단기훈련에 이은 2번째 훈련이다. 이 단기훈련의 강사와 과목은 다음과 같다.

• 김득룡(총신교수)

교수의 7원리(교사·학급·교과과정·교수진행·학습진행·복습과 응용)——Ⅰ, Ⅱ, Ⅲ부교사

• 정정숙(총신교수)

어린이 신앙 생활지도——Ⅰ. 부교사

• 옥한흠(목사·평교회시무)

청소년 신앙은 생활지도——Ⅱ, Ⅲ부교사

각 종 통 계

1979. 3. 4 (1월말 기준)

총현기도원 안내

〈교 통 편〉

1. 교회버스편

- 매주일 저녁예배 후
-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교회 앞에서 출발합니다.

2. 시외버스편

- 마장동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이천·여주 방면 완행버스를(20분 간격) 타고 초월면 사무소 앞에서 하차하시면 됩니다.

〈주 소〉

130-12, 경기도 광주군 초월면 대쌍령리

〈전 화〉

교환 101번을 거셔서「경기도 광주초월 14」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	분	남			계	총세대수	3,133		
		남	여	계					
집	예배	주일날	I부	177	335	512	교인	남	3,182
			II부	381	905	1,286		여	4,240
			III부	357	781	1,138		계	7,431
			IV부	213	455	668		남	1,807
	주일	저녁	삼	254	401	655			

4월의 행사



- 1 일 정기제직회 · 산업전도회 월례회
- 5 일 학습 · 세례문답식
- 6 일 세례식
- 8 일 성찬식 · 헌혈실시
남전도회 · 권사회 월례회
산업전도 교육부 헌신예배
- 13일 교회철야 기도회
- 15일 부활주일
월간총현 4월호 발행
여전도회월례회 · 월간총현 편집위원회
- 16일 교육위원회 월례회
- 22일 구역권찰회 · 전도위원회 월례회
청년부 헌신예배
- 29일 해외복음선교회월례회 및 헌신예배
- 30일 장로 취임 · 장립식
- 31일 정기당회

편집하고 나서

※...부활절을 맞으며 우리 교회의 교역자 여러분이 부활절에 관한 귀한 글들을 써 주셨다. 모처럼 총현의 식구들을 위하여 한자리에 모을 수 있음이 무척 기쁜 일이었다. 하나 하나가 모두 귀하고 값진 글들로 부활의 뜻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다.

또한 KBS-TV에의 대담 내용을 부활절 아침에 소개한다. 전국의 믿는 자와 안 믿는 모든 자에게 주님의 부활을 증거한 목사님의 대담 내용은 매우 힘 있고 귀한 것이었다. 오늘 부활절 아침에 한번쯤 생각해 볼 만한 것들이다.

※...최근 중공에서부터 점차 문이 열려 공산권에의

선교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중국 대륙과 소련에서의 문의 편지가 극동 · 아세아방송국에 많이 접수된다는 소식을 우리는 신문보도를 통해서 듣고 있다. 이번호에는 소련에서 직접 온 편지를 소개할 수 있어 무척 기쁘다. 이를 위해 아세아방송국의 김영국장로님이 많은 수고를 해 주셨다.

대 공산권선교를 앞둔 우리는 모두 관심을 갖고 일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계속 지면관계로 미루어 온 「한알의 만나」난을 신설한다. 이는 각부 주일학교 담당 지도교역자가 계속하여 돌려가며 쓰게 될 것이다.

* 1979년 월간총현 조직 *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 / 조현명 지도 / 정상우
서기 / 고재원 회계 / 이형수

편집위원 / 정상우 이준교 윤형철
조선근 김차생 박성수 손경수
오태용 이사례

주간 / 이준교 편집국장 / 이형수
간사 / 오태용 고재원

월 간 총 현

4월호

제 7 권 통권 제 64 호

1972년 4월 30일 창간

1979년 4월 15일 발행

발행인/김 창 인
편집인/조 현 명
주 간/이 준 교
편집국장/이 형 수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현교회

100-서울 중구 중무로 5 가 36

267-9937 · 9738

부활의 새 아침에 붙여

I. 고 난

저주, 죽음, 형벌의 곳
 끌고다의 언덕에
 세 십자가가 거기 서있었다.
 그 중앙에 우뚝 서있던 그 십자가 위에
 죄없는 죄인으로
 온 인류의 죄!
 뭉땅 그 어깨에 지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
 주님의
 그 외침, 그 고독, 그 피뿌림의 제사가
 「단번에 영원한 제사」가 될 줄은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
 이다.”
 주님이 운명하시던 그 날, 그 시간!
 태양은 빛을 잃었고,
 온 땅에 어둠과 떨림이 요동치고 있었다.
 그러나
 성전의 휘장! 위에서 아래로 갈라져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새 생명과 소망의 길이 열렸다.
 어린 양의 붉은 피!
 얼룩진 그 언덕 넘어
 무덤 하나 어둠과 함께 고요히 누워 있었다.

II. 부 활

무지와 반역! 교권과 시기!
 그리고 또,
 진리를 몰랐던 불의한 재판 밑에서
 무참히 상처난
 온 인류의 메시아!
 그리스도의 유해는
 3일을 고요히 무덤 속에 쉬셨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

만세 전에 약속했던
 부활의 열매는!
 에덴의 불순종으로 인한
 인류의 저주와 죽음을 뛰어 넘고 넘어,
 「끌고다」의 사망의 권세,
 할렐루야! 이기시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주의 천사 나타나
 바위를 굴러 내시고,
 두번째 또 땅은 몸부림치었다.
 불의와 죄와 죽음이
 주의 발 아래 무너지고 항복하던 그 날,
 그 새벽 미명!
 부활의 주님은
 무덤 밖에 서시고
 흐느끼는 마리아를 부르시었다.

두려움과 절망의 어둠만이
 가득 채우고 있던 그 다락방!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승리의 주」 그리스도는 제자들을 찾아오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
 하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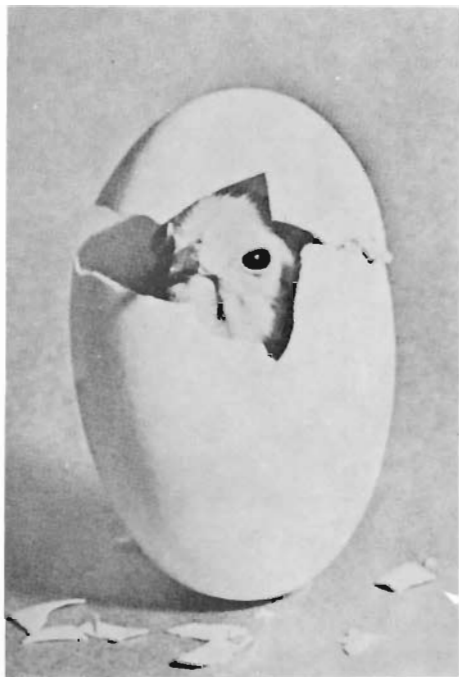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 임마누엘의 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요시옵소서!”



이 양 우전도사
 〈유년부지도〉

병아리와 할머니와 부활과

나는 어렸을때 부모님께서 자주 지방에 계셨기에 할머니와 함께 지난적이 많았다. 할머니께서는 우리집 앞마당의 공터에 밭을 만드시거나 닭장을 만들어 닭을 키우곤 하셨다. 한번은 암탉이 계속해서 알을 품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암탉은 모이를 먹을때만 잠깐 나오고 다시 올라가서 알을 품곤 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닭장을 가만히 들여다 보는데 갑자기 뽀약뽀약 소리가 나며 어미닭 품속에서 새끼만 병아리가 쭉 나오더니 두다리로는 쭉쭉 걸어가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또 얼마 있다가 닭이 날개 쪽지 한쪽을 들자 역시 알 껍데기를 깨고 조그만 병아리가 튀어 나오는 것이었다. 그때 병아리가 하얀 알의 껍데기를 절반 잘라놓고 새끼만 병아리가 나온것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 나는 사랑하시던 할머니께서 노쇠해 지셨을때 할머니를 안아 닭장 앞에 모셔다 드래면 병아리를 보시고 어린이처럼 좋아하셨다. 그러던 할머니가 82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천국에 가셨다. 그 일은 나의 생애에 최초로 죽음의 공포를 인식시켜 주었고 정 들었던 분과의 헤어짐에서 오는 섭섭함도 체험하게 되었다. 그러나 할머니의 시선 앞에서 병아리의 부화를 생각하게 되었고 그와 함께 홀로 지어낸 육체를 벗고 영원한 천국에 가신 영광스러운 할머니



을 생각해 되었다. 그리고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이신 주님의 부활,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재림을 하실 할머니를 생각하였다. 그순간 죽음도 섭섭함도 모두 사라졌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승 근강도사
(교통부 지도)